

21세기의 새로운 미디어를 통한 성경의 번역과 전달

로버트 하지슨*

박철현 역**

서론: 번역과 문화

유인원이 처음으로 서로에게 막대기를 흔들거나, 가슴을 두드리거나, 발을 구르거나, 오줌과 땀새로 영역 표시를 하거나, 모래에 금을 긋거나, 승인의 표시로 쿵쿵거리거나, 쇠 하는 소리나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위험을 표시하거나 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기의 생각과 의도를 표현하기 시작했을 때 이와 같은 신호체계를 공유하지 않은 다른 개인이나 집단이 이러한 메시지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드라고만(dragoman)이라는 특별한 종류의 의사소통 전문가와 직업이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오늘날의 번역가와 해석가들의 조상이다. 이러한 초기의 시작부터 오늘날까지 번역가와 해석가들은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해 왔다. 푸쉬킨(Pushkin)이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은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초월하여, 그리고 가족이나 부족이나 봉건 영지나 나라나 도시 형태의 국가나 나라 형태의 국가 등 모든 알려진 사회조직의 경계를 초월하여 문명의 우편배달부 역할을 해주었다.

지난 거의 반세기 동안 번역학(Translation Studies)이란 학문은 번역과 해석이 역사와 문화 속에서 해온 역할에 대해서 연구하고 체계화 해 왔다. 번역과 해석은 우리 시대의 가장 풍요로운 이야기들 중의 하나이면서도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왔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으로 보편적인 이야기들 중의 하나인데, 번역학은 이것을 자료화해 왔다. 번역가들과 해석가들은 알파벳을 고안하고, 나라의 언어와 문학의 탄생을 촉발시켰으며, 과학과 인문학적인 지식을 보급하고, 정치권력의 고삐를 쥐고, 종교를 증진시키고, 역사의 기록을 도와주었다. 그러나 이것은 번역이란 것의 오직 한 가지 종류, 즉 언어로 된 자료를 중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번역은 이러한 것들에만 기여한 것이 아니라 선화(線畵), 회화(繪畵), 도화(圖畵), 그래픽 디자인, 음악, 조각, 무용, 건축 및 영화,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 미국성서공회 나이다 연구소 책임자

**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구약학

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대의 번역학이 번역과 해석이라는 주제를 파고들기 전까지는 성 제롬(Saint Jerome)과 라틴어 별게이트 역본(the Latin Vulgate), 마틴 루터와 독일어 역본, 제임스 2세와 그의 성경 번역 사업 등과 같이 대부분 성경 번역과 관련된 몇 개의 유명한 예들을 제외하고는 번역과 해석에 대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무시되거나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머물렀다. 역사적으로 번역가들과 해석가들이 주목을 받지 못해 왔다는 것은 이 직종이 낮은 지위와 작은 보수밖에 누리지 못하고, 학적이고 문화적인 기관들로부터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한 직업이었다는 점에 기인한다. 한 언어만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 북아메리카의 사람들은 습관상 우리가 읽는 번역된 글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보지 않는다. 사실 우리는 원래는 우리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쓰였던 이야기나 소설, 역사나 우화, 그리고 시들을 엄청나게 읽고 있는데도 말이다. 예를 들어 “그림의 동화집”(Grimm’s Fairy Tales)이나 “미운 오리 새끼” 같은 고전적인 어린이 문학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 또한 우리가 고등학교나 대학교 교육을 받을 때 접하게 되는 “80일간의 세계일주”, “해저 이만리”, “일리아드”, “오디세이”, “아에네이드”, “파우스트”, “삼총사”, “단테”와 같은 무수한 번역 문학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 그리고 현대의 대중매체적인 작품들의 경우도 한 번 생각해 보라. 통신사들을 통해 대중매체로 전달된 뉴스 보도들을 읽거나 들으면서 이것들이 번역되고 해석된 것들임을 인식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과연 얼마나 될까? 심지어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우리가 번역된 책을 읽는 경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그 의의에 대해 별로 주목하는 경우가 없다. 그리고 사실 어떤 성경 번역본들은 번역본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하고 마치 거의 원본인 것처럼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킹제임스 역본(the King James Bible)이 그러한 경우이다.

번역은 현대의 영화나 방송 매체에도 흔적을 남겼다. 1920년대의 복음 전도자 에미 켐플 맥퍼슨(Aimee Semple McPherson)의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20세기 초의 그리피쓰(D. W. Griffiths)의 “인톨로런스”(Intolerance) (1916)란 영화 등이 그 예이다.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를 오늘날의 영화로 각색한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the Passion of the Christ)나 “이집트 왕자”(Joseph the Prince of Egypt)도 역시 같은 경우들이다.¹⁾ 더빙된 영화나 자막이 달린 영화들, 혹은 자막이 제공되는 오페라나 연극들은 모두 번역에 의존하고 있다.

번역은 미국의 종교 및 정치의 전 영역에 족적을 남겼다. 청교도들은 메이플라

1) 역사 주 - 여기에서 저자가 약간 혼동하고 있는 듯하다. Dreamworks가 만든 영화로 개봉된 영화는 “이집트 왕자”(The Prince of Egypt)이다. 그리고 이후 DVD 보급용으로 Joseph: King of Dreams가 출시되었다. 그러나 Joseph: The Prince of Egypt란 단일 영화는 없다.

위 호(the Mayflower)를 타고 올 때 제네바 성경(the Geneva Bible)이라고 알려진 성경 번역본을 가져 왔는데, 이 성경의 번역된 본문과 그 생생한 해설들은 이후 미국의 복음주의적 기독교에 초석이 되었다. 서부로 향하는 신천지 개척자들과 속달 우편배달부들은 번역된 성경들을 지니고 다녔는데, 그것은 점증하는 미국 국민들에게 번역된 성경을 배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1816년 5월에 설립된 미국성서공회의 서적 행상들 덕분이었다.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이 몬티첼로(Monticello)에 있는 그의 집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의 공공건물들에 건축학적인 색채를 가미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번역된 글들 덕분이었다. 그는 16세기 이탈리아의 건축가인 안드레아스 팔라디오(Andrea Palladio)의 작품들을 영어로 읽었던 것이다. 또한 미국의 법 역시 해석되고 번역된 법 전통과 법률 문헌들의 바다 속에서 자양분을 공급받았다. 해석되고 번역된 영국 관습법(English Common Law)과 마그나 카르타(Magna Charta)로부터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심지어는 고대 근동의 법전들이나 법률 문헌들에 이르는 문헌들이 [미국 법의 바탕이 된 것이다]. 특히 나폴레옹 법전의 번역본은 루이지애나의 주법(州法)의 기초가 되기도 했다.

최소한 지난 2500여 년 동안 성경을 번역하고 해석²⁾하는 일은 인간의 의사소통과 상호교류와 문화 변용의 큰 역사(the larger history)에 공헌을 하였다. 아마 번역되고 해석된 다른 그 어떤 문헌보다도 성경은 유럽과 미국의 사람들에게 그 흔적을 강하게 남긴 듯 하다. 그리고 이 점은 선교사들이 성경 번역본들을 전해 준 식민지의 사람들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바벨탑의 이야기(창세기 11:1-9)를 통해서 이 커다란 이야기에 대한 그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번역과 해석을 필요로 하는 혼잡하고 시끄러운 말을 가리키는 “바벨”이란 단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

이 책은 번역과 문화라는 큰 주제에 속한 책이다. 그러나 이 책은 이 큰 주제의 한 측면, 곧 성경의 번역과 해석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 사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성경 번역의 오직 한 측면, 곧 성경을 인쇄물이 아닌 다른 형태의 매체로 변환하는 문제만을 다루고 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주제는 민감하지만 시의적절한 문제이다. “민감하다”는 표현을 쓴 이유는 성경을 인쇄물이 아닌 다른 형태의 매체로 “번역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번역의 성격에 대한 뿌리 깊은 통념, 즉 성경은 책이며 기독교는 책의 종교라는 통념, 그리고 성경이 책이라는 것에 의존하고 있는 직업들과 학문 영역들의 미래에 대한 통념들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

2) 역자 주 - 지금까지 interpret는 통역이라고 번역해 왔는데 여기의 경우는 해석이 맞는 듯하며, 앞의 경우들도 해석이라는 번역이 더 나은 듯하다.

의적절하다”는 표현을 쓴 이유는 성경 해석 및 번역의 가장 주목받지 못한 영역, 곧 “예술사”(art history)란 이름으로 살아남은 영역을 우리의 논의가 현대적인 번역학의 영향 속에서 되살려 주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적절하다”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현대의 매체와 기술이 성경의 매체적 번역의 중흥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1. 제 1강: 번역의 속성

전통적인 번역

러시아의 언어학자인 로만 야콥슨(Roman Jakobson)은 우리가 “번역”(translating)이라고 부르는 인간의 행동이 사실은 세 개의 서로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상이한 종류의 행동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세 가지 중 첫 번째 것을 그는 언어간 번역(inter-linguistic translating)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전통적이면서도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번역의 임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한 언어로 된 언어 자료를 다른 언어의 언어 자료로 바꾸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채프먼(Chapman)은 호머의 작품들을 그리스어에서 영어로 번역했다. 두 번째의 것은 언어내적 번역(intra-linguistic translating)이라고 알려진 번역행위인데, 이것은 글을 다시 풀어 쓴다든가 다시 쓰는 작업을 가리킨다. 즉 한 언어로 되어 있는 본문을 같은 언어의 다른 형태, 즉 방언이나 다른 언어사용역(register)³⁾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1971년에 케네쓰 테일러(Kenneth Taylor)는 미국표준역(the American Standard Version, ASV)의 풀어쓰기 작업을 마치고, 이것을 매우 인기 있는 *Living Bible*로 출간했다. 또한 미국성서공회의 일련의 그림 소설들도 역시 이러한 언어내적 번역의 예이다.

세 번째 종류의 것을 야콥슨은 기호간 번역(inter-semiotic translating)이라고 불렀다. 이 종류의 번역 행위는 한 기호 체계나 매체로 이루어진 자료나 정보를 다른 기호 체계나 매체의 자료나 정보로 바꾸는 것, 혹은 더 나아가서는 기호 체계나 매체의 조합으로 바꾸는 것을 가리킨다. 기호간 번역은 책을 영화나 만화나 그림 소설로 만드는 것과 같은 행동들을 포괄하며, 희곡이나 가극의 가사들을 연극이나 오페라로 만드는 것도 포괄한다. 또한 악보를 성악이나 기악으로 전환시

3) 언어사용역(Register) - 방언이 언어체계상의 변이형이라면 ‘언어사용역’은 언어의 사용에 따른 변이이다. 언어사용역은 대화의 상황에 따라 동일한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다른 대화 방식을 취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키거나 내러티브를 그림, 무용, 조각, 건축물로 표현하는 것도 포괄한다. 또는 글로 된 자료를 점자나 수화로 변환시키는 것과 메시지를 깃발 신호나 모스 부호로 전환하는 것도 포괄한다. 강연을 동시통역이나 순차통역 하는 것, 영화를 더빙하거나 영화에 자막을 입히는 것, 글을 CD-ROM이나 DVD, 인터넷상에 멀티미디어로 구현하는 것 등도 여기에 속한다.

아우구스토 폰지오(Augusto Ponzio)는 오늘날 번역이라는 작업은 언어학(linguistics)과 문헌학(philology)이라는 벽을 이미 오래 전에 뛰어넘어 광활하고 다변화된 분야로 이루어진 대초원을 가로지르면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기술, 매체, 학문분야,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구한 도구와 이론과 실행으로 그 갈증을 해소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이면서 전통적인 사고방식 속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성경 번역 분야에서는 번역은 여전히 언어간 번역을 의미한다. 그것은 토판이나 두루마리나 책자형 사본(codex), 그리고 결국은 인쇄된 페이지들 위에 보존된 언어 자료를 번역하는 것을 연상시킨다. 이러한 전통적 견해는 번역이라는 것을 영화 제작이나 만화와 그림 소설의 생산과 별로 연관시키지 않으며, 무용이나 음악 공연 혹은 조각 제작이나 인터넷의 웹 페이지 제작과는 더욱 더 연관시키지 않는다.

포스트모던적인 성경 번역(Post-modern Bible Translation)

그러나 포스트모던적인 세계 속에서 번역에 대한 야콥슨의 견해는 옳게 보이며 또한 옳게 느껴지는데,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인간의 의사소통이란 복잡한 영역에 속하는 번역이란 행동은 다양한 의사소통 모델과 양상들을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의사소통 모델들과 양상들은 분명히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 등의 방송이나 스크린 매체가 전통적인 책 문화와 병행해서 창조한 구전 문화(the oral culture), 즉 월터 옹(Walter Ong)이 이차적인 구전성(secondary orality)이라고 평가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차적인 구전성은 언어로 이루어져 있는 인쇄된 글들과 달리 소리, 이미지, 동작, 색깔, 시점 등을 다루는 지식 및 정보 형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러한 요소들과 더불어 독자들이나 청중들이 자신들이 읽거나 보고 있는 자료 속에 들어 있는 의미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하는 능동적인 역할을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 메시지가 총알처럼 날아가 박히는 고정된 과거인 낭독자나 관람자가 수동적인 시절은 지나갔다. 능동적인 독자들과 관람자들은 읽거나 관람을 할 때 의미 창출 과정에 참여한다. 그들은 무엇이 자신들에게 관련이 있는지, 수용할 만한지, 맘에 드는지를 결정한다. 매디슨 애버뉴(Madison Avenue: 미국의 상업 광고의 중심지-역주)가 이끄는 포스트 모던 세

계에서는 상품들, 그 중에서도 특히 번역된 상품들은 특정한 관객들이나 시장을 파고들기 위해서는 고도의 지역화(localization)와 특성화(specialization)를 보여 주어야 한다. 요즘 통하는 새로운 주문(呪文)은 “한 사이즈가 모두에게 다 맞는다”(“one size fits all”)가 아니라 “한 사이즈는 딱 하나에만 맞는다”(“one size fits one”)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대중적 매체 상품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거룩한 글들과 성경에 토대를 둔 매체 상품들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포스트모던적인 추세들은 매체 번역(media translation)을 부각시켜주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경향은 인쇄기와 대량생산된 성경이 등장하기 전에 사람들이 강단에서 강독되는 성경을 듣고, 그리스도의 수난극들을 상연하고, 성경의 장면들이나 주제들을 천이나 양탄자에 새기고, 시편을 읊거나 노래하고, 성경의 내용들을 선화(線畵, drawing)나 삽화나 그림(painting)으로 그리고, 사적인 예술이나 공공건물들을 성경의 이야기들과 주제들을 알리는 매체로 이해하던 시대로 우리를 되돌려주는 듯 하다.

기호간 번역(inter-semiotic translation) 혹은 매체 번역(media translation)은 개인이 아닌 팀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기술과 미디어에 의존한다. 이것은 무용이나 노래나 퀼트(quilt)를 만드는 것처럼 쉽게 영화, 그림 소설, 만화 등을 만들 수 있다. 사실 이 형태의 번역은 언어간 번역이나 언어내 번역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최고의 관행들을 존중한다. 기호간 번역의 경우도 역시 원문을 참조하고, 언어학자와 모국어 사용자와 문헌학자와 성경 전문가들에게서 정보를 얻는다. 또한 질적인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 과정 내내 검토와 균형유지에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기호간 번역은 음악가, 드러머, 무용수,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들이나 예술가, 일러스트레이터, 안무가, 시나리오 작가 등을 작업에 참여시키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기호간 번역 팀은 번역이 신뢰할 만한가 하는 것을 평가할 때 그것이 원작에 얼마나 충실하나 하는 전통적인 검토와 더불어 그것이 얼마나 잘 수용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검토하게 된다. 번역하는 과정에 항상 독자나 관람자, 혹은 수용할 시장과 문화와 청중이 그 번역을 환영하고 이해하며, 그 번역을 재 활용하고 다른 것과 연관시키고, 그 번역을 적용하고, 그 번역을 대화에 끌어들이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던져질 것이다.

유진 나이다(Eugene A. Nida)는 모든 번역은 지역적(local)이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현대의 성경 번역작업에 새로운 진로를 부여해 주었다. 그는 모든 번역 팀에 모국어 번역자들을 배치할 권리를 얻기 위해 투쟁을 했다. 이는 번역의 성공을 결정짓는 것은 교회의 권위나 성서공회의 힘, 혹은 발행자의 마케팅 지식,

더 나아가서는 번역자의 실력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수용성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나이다의 통찰은 현대의 포스트모던적인 성경 번역에 있어서도 여전히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지역적”이라는 말이 미국 도시의 힙합 문화나 일본의 만화책 문화나 유럽의 인터넷 카페 문화 속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이것은 어쩌면 기호간 번역 팀이 새로운 종류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 즉 예술가, 일러스트레이터, 영화제작자, 웹 디자이너, 음악가 등을 작업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스라엘 출신 학자로서 현대적인 번역학의 제창자들 중의 하나인 기드온 투리(Gideon Toury)는 번역은 해당 청중이 그것을 번역으로 받아들일 때에야 비로소 번역으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무게중심이 독자 및 청중으로 이동한 것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교단과 목회자들과 교회들, 발행인들과 성서공회들, 서적상과 책 유통업자 연합들은 자신들의 사고방식을 새롭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미국 도시의 길거리 문화에 익숙한 십대들과 인터넷 카페의 네티즌들과 도쿄의 열혈 만화 애호가들은 어떤 의사소통 수단이나 매체를 자신들이 신봉하고 또 신봉하지 않는지를 스스로 잘 알고 있다. 정말로 도심의 거리를 활보하고, 교외의 쇼핑몰에서 영혼들을 사로잡고, 시골의 냇길들에서 길을 찾아나가기 위해서는 성경은 반드시 지역적(local)이 되어야 한다. 성경은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교회에 있는 강단용 성경이나 찬송가 같은 느낌을 주기보다는 도심과 교외와 시골의 벽의 낙서(graffiti)나 만화, 음악이나 무용, 예술처럼 보여야 하고 또 그런 느낌을 주어야 한다.

제 1장[이 원고상으로는 제 2장인 듯-역자 주]에서는 지난 이천 년 동안의 매체적인 성경 번역(media Bible translation)으로부터 몇 가지 예를 들고 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삽화, 그림, 음악, 조각, 건축, 인쇄물 등으로 번역해온 지속적인 역사를 상기시킨다. 제 2장[이 원고상으로는 제 3장인 듯-역자 주]에서는 매체 번역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을 제공할 것이다. 이 장은 매체 번역의 연구, 훈련, 제작, 및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임무들을 설명해 줄 것이다. 이 장은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도 특히 기호학, 즉 기호 및 이 기호가 어떻게 의미를 창출하는가 하는 것을 다루는 이 학문에 의존하고 있다.

2. 제 2강: 성경과 매체에 대한 간략한 역사

성스러움과 혼합성(Sacred and Syncretic)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성스러운 이야기들을 보관, 보존, 해석, 재 활용(repurpose)할 가치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을 때 그들은 이 이야기들을 문헌 상으로, 그리고 시각적으로 번역했다. 성경의 문헌적인 번역(textual translation)의 역사는 사료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으며, 이 글에서의 우리의 관심이 아니다. 반면에 성경의 시각적 번역(visual translation)–즉 성경의 기호적 번역(semio-translation)–의 역사는 번역이라는 주제로는 사실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며 대신 미술사, 음악사, 무용사, 영화사, 연극사, 건축사 등의 분야에 포함되어졌다. 하지만 성경의 시각적 번역 혹은 기호적 번역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니다. 노아와 방주, 이삭의 희생제사, 다윗과 골리앗, 출애굽 사건, 요나와 물고기, 선한 목자이신 예수, 최후의 만찬, 막달라 마리아, 성 금요일과 부활 주일 등 항상 인기를 끌어난 주제들을 고대의 기독교인들이 어찌 선화(線畵), 회화(繪畵), 음악, 무용, 조각, 건축 등으로 번역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들을 현대의 기독교인들 역시 어찌 영화, 만화, 그림 소설,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을 위하여 되살리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결국 우리 현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고대인들 역시 예술이 가진 힘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고를레(Gorlée)의 말대로 예술은 “한 메시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구체화하고 의미심장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기호간 번역은 여러 다른 감각기관들에 호소함으로써 서로 다른 ‘언어들’–즉 미학적, 정치적, 철학적, 인식론적, 전자적 언어(electronic language) 등–사이의 틈을 효과적으로 메꾸어 준다”.

위에서 언급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성서가 확실히 하나의 책처럼 보인다는 것은 사실이다. 성서는 좋은 책(the Good Book)과 성경(the Holy Scripture)이라고 불려졌는데, 이러한 점은 성경의 바로 이런 측면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 그러나 성서를 펼쳐서 그것을 소리 내어 읽어 보라. 그러면 당신은 거룩한 땅(the Holy Land)이라고 불려지는 신비롭고도 장엄한 장소로 나아가는 문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이 땅은 기록, 인쇄된 말로 된 장소가 아니라 살아 있는 가족과 지파와 마을, 상인들과 귀족들과 빈민들, 이야기꾼들과 장인(匠人)들과 예술가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세계이다. 이들은 이미지와 소리와 냄새와 동작과 색채와 감정들이 뒤섞인 내러티브들을 이것들을 사용하는 방식 및 규례들과 함께 전수한 사람들이다. 기호학자 시리 네르하르트(Siri Nergaard)의 용어를 빌려 표현하자면 성경은 간단히 말해서 혼합적인 본문이다(a syncretic text). 성경은 단순

히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기호체계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성경 내러티브의 시각적 언어는 양과 염소, 장막과 성전, 문과 정원, 뱀과 죄인들, 대상들과 십자가들의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다. 당신은 여호수아의 나팔 소리와 여리고의 벽이 무너지는 소리, 다윗이 사울 왕의 진영으로 스며들 때 살금살금 움직이는 발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막카비의 군인들이 낮게 웅얼거리면서 전쟁을 위하여 칼과 창을 날카롭게 가는 소리를 잡아낼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코는 주후 70년 예루살렘에서 거세게 타오르고 있는 불길 속에서 피어나는 연기 냄새를 맡을 수 있다. 당신은 유향 단지에서 피어오르는 강한 향내와 달콤한 향유와 로즈마리와 다임과 마늘 바구니에서 피어오르는 냄새를 오랫동안 기억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새롭게 짠 포도와 올리브 통 위에 떠다니는 과일향 속에 머물고 싶어 할 것이다. 당신의 손가락들은 양모의 폭신한 감촉과 아마포와 비단의 섬세한 실의 감촉을 느끼게 될 것이다. 당신은 날아다니고, 우글거리고, 수영하고, 어슬렁거리는 모든 종류의 움직임을 가진 성경의 동물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다. 성경은 번역되기를 기다리는 수천 년의 물질 문화적 요소들로 가득 채워진 멀티미디어 제작 스튜디오를 담고 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고대 지중해 지역을 무대로 해서 살아간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셨음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열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종교적인 메시지들을 담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이러한 물질 문화적 요소들은 사실상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적인 메시지들 역시 문헌적이고 언어적인 형태에 머무르지 않고 이 메시지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기호 체계들로 바꾸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로의 군대로부터 구원하시자 미리암은 춤을 춘다. 하나님은 자신의 불가해한 신적 의지를 돌판 위에 나타내셨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 어린 양과 쓴 나물들과 무교병을 먹는 제의적 성격의 식사로 이 사건을 기념한다. 성전 성가대는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고, 자신들의 찬양을 시편 속에 기록한다. 하나님께서 시리아의 적들로부터 막카비의 사람들을 구원하셨을 때 막카비 사람들은 수마일 밖에서도 볼 수 있는 큰 기념비를 세운다. 바울은 편지들을 구술한다. 계시록의 저자는 이상(異象)을 보고 그것들을 기록한다. 예수는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신다. 예수의 추종자들은 사람들이 죄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는 것을 돕는 데 물을 사용한다. 그들이 예수의 구속적 죽음을 상징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선택한 것은 아주 탁월한 것이었다. 이것을 통하여 그들은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하나의 상징물로 포착해냈다. 구두전승을 보존하고 기록하기 위해 그들은 두루

마리를 선택했으며, 또한 책자형(codex) 사본을 고안해내기도 했다.

약술하자면 성경은 모든 감각기관을 자극하며, 우리의 상상력을 부추기고, 우리의 기억을 해집으며, 예술적인 감성에 불을 붙인다. 성경의 독자들 중에 노아와 방주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이상한 배에 타게 된 사람과 짐승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들이 서로 어떻게 지냈는지를 마음의 눈으로 그려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또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읽고 골리앗의 갑옷의 킁킁거리는 소리나 다윗의 돌이 이 거인의 머리에 명중했을 때 난 소리, 혹은 골리앗이 쓰러질 때 난 소리에 대해 궁금해 하지 않은 사람도 아마 없을 것이다. 예수를 십자가에 달기 위해 망치로 대못을 때리는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바울이 아테네에 입성해서 헬라와 로마의 신들을 기념하는 이 도시의 광경을 보고 털을 곤두세우면서 본 성소와 신전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궁금해 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성경 번역과 미술사(Bible Translation and Art History)

성경은 성스러운 책이면서도 혼합적인 자료(오늘날로 말하면 제작되기를 기다리는 멀티미디어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그림, 음악, 무용, 건축, 옷감 등에 재현한 예술적, 매체적, 문화적 재현의 역사와 인쇄 번역의 역사를 이전에 흔히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쉽게 분리할 수가 없다. 손으로 쓰거나 인쇄한 성경과 성경의 내러티브들을 예술적, 문화적으로 창조한 것은 모두 번역이라고 불리는 의사소통 전략에 해당하는 것이다. 단지 전자는 언어간 번역(interlinguistic translation)이며, 후자는 기호간 번역(inter-semiotic translation)일 뿐이다.

기독교의 역사에서 이 두 가지 형태의 번역은 영적인 고양, 예배, 가치 형성, 교화, 지역화, 교육, 오락 등의 공통의 목적들을 달성하는 데 기여해 왔다. 양자는 모두 원본에 의존하며, 정확성과 수용성을 보증 받기 위해 검토와 균형유지를 필요로 한다. 양자는 또한 모두 해석과 활용에 있어서 강력한 전통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중의 참여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청중의 참여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 청중의 참여란 것이 지갑의 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처음 받은 신앙의 양태와 전수된 신앙, 권력자의 정치 형태, 성상파괴자의 협박,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날은 텔레비전 리모콘의 조작 등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역사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성경의 청중들은 독자(reader)들보다는 청취자(auditor)와 관람자(spectator)였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미사 중에, 그리고 설교와 강설들 속에서 강단으로부터 들려오는 거룩한 이야기들을 들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는 성경의 세계와 그 내러티브들을 자신들의 노동가와 찬송과 수

난극과 가정의 예술품들과 장식용 동굴집(grotto)과 순례지들과 공공건물과 모자이크와 부조(浮彫)와 조상(彫像)들과 유물들을 통해서 만났다.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미술사의 주제라고 부르는 것들은 글을 읽을 수 없는 청중들에게 성경의 내용을 보여주는 인기 있는 방법들이었다. 이론의 여지는 있을지라도 이러한 방법들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성경과의 가장 중요한 접촉점이었다.

약술하자면 기독교 세계의 물질 문화 및 영적 문화는 야콥슨의 방식으로 성경에 근거하였다. 즉 언어간 번역, 언어내 번역, 기호간 번역을 사용하여 성경의 거룩한 이야기들을 말, 소리, 이미지, 동작, 색채, 선, 모양 등을 통해 전달하였던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진 거의 모든 매체와 기술을 사용하여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전수되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성경은 그 자체의 매체를 창조해내기도 했다. 예를 들어 현대의 제본된 책의 조상이 된 고대의 책자형 사본(codex)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이 현대의 라디오와 텔레비전과 영화라는 현대의 방송 미디어를 형성하는 데 일조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최근 드림웍스나 아이칸 프로덕션이 만든 “요셉, 이집트 왕자”,⁴⁾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등을 생각해 볼 때 할리우드의 프로덕션 스튜디오들에 미치는 성경의 효과를 어찌 의심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성경의 기호간 번역은 풍부한 이야기를 갖고 있다. 여기에 제시된 큰 개요만으로도 말이다.

구전 전승(The Oral Tradition)

대부분의 성경 전문가들은 성경 내용 대부분이 누군가가 기록으로 남기기 전에 여러 세대에 걸쳐 입으로 전수된 구전 전승에서 기원했다는 견해를 받아들이고 있다. 비록 구전 전승 자체는 살아남지 못했지만 그 흔적들을 남겼다. 유대인들이 유월절 하가다(the Passover Haggadah)나 쉼마(the Shema)를 읊조릴 때,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성찬식에 성찬 제정의 말씀(words of consecration: words of institution)이라고도 불리움-역자 주)을 복창할 때 그들은 구전 전승을 되살리고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초기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들, 특히 후에 복음서들의 기초가 된 예수의 죽음과 부활(고전 15:1-9)에 대한 근본적 가르침에 대해서 쓸 때 의존한 것이 바로 이 구전 전승이다. 이 구전 전승은 주후 2세기의 상당 기간까지 기독교인들의 삶의 생생한 한 부분으로서 폭넓고도 활기차게 살아

4) 저자가 약간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드림웍스가 만든 영화는 *The Prince of Egypt*와 *요셉, 꿈 (Joseph: King of Dreams)*이 있다. 그러나 “요셉 이집트 왕자”란 단일 영화는 없다.

남았다.

손으로 쓴 문헌들(Handwritten Texts)

손으로 기록한 문헌들은 성경의 이야기들의 구전 전승을 기록하고 해석하는 최초의 방법들 중의 하나였다. 비록 이것이 최초의 유일한 방법은 아닐지라도 말이다. 손으로 쓰고, 손으로 베껴 쓴 이 문헌들은 사본들(manuscripts)이라고 불려졌는데, 이것들은 역사적으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거룩한 책들(sacred Scriptures)이라고 인정한 원 자료들(the source texts)의 첫 단계를 구성하였다. 초기부터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기록된 형태의 성경 이야기들을 특별하게 취급하였으며, 이것들을 예배와 교육과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취급하였다. 히브리 성경 혹은 구약 성경에 대한 가장 이른 시기의 사본들은 주전 2, 3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사해 두루마리라 불리는 수집물에서 기원했다. 다음은 시편의 한 예이다.

<그림 1> 시편의 사해 두루마리

기독교인들은 예수와 그의 최초의 추종자들에게서 파생된 구전 전승들을 귀중하게 여기긴 했지만 이것들을 기록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 그 결과 1세기 중엽부터 사도 바울의 손에서 서신서들이 나오고 복음서 기자들의 손에서 복음서들이 나왔다. 이러한 초기 기독교 저술들 중에서 원본은 살아남지 못했다. 학자들은 완판본 사본 혹은 필사본 성경의 가장 최초의 것들을 4세기 중엽의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보다 이른 시기의 사본들의 단편들도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들은 성경 본문의 전수와 보존 과정에서 기록이 했던 역할을 웅변적으로 증언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복음서의 본문들을 담고 있는 보드메르 파피루스 66을 보라. 이것은 주전 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림 2> 파피루스 66

비록 초기 유대교와 기독교의 이런 사본들이 예술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본들은 기술적으로 대단한 섬세성과 전문성을 보여주고 있다. 뛰어난 장인(匠人)들이 파피루스, 가죽, 구리 등을 잘라서 필기할 면을 준비했으며, 이것을 자로 재고 행과 열을 그어서 글 쓸 칸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나서 필경사(scribe)라고 불리는 전문적인 필사가들이 본문을 필사하거나 저자의 구

술을 받아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의 제작에 있어서 이 필경사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예를 들어 바울은 더디오(Tertius)라고 불리는 전문 필경사에게 로마서를 구술했다(롬 16:22). 고전 1:1 (소스테네), 빌 1:1 (디모데), 골 1:1 (디모데), 고후 1:1 (디모데), 살전 1:1 (실라와 디모데), 살후 1:1 (실라와 디모데), 몬 1 (디모데)에 대한 통상적인 해석에 따르면 그는 이러한 관행을 다른 서신서들을 쓸 때도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림들(Drawings)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거룩한 이야기들을 쓰고 필사할 때 성경의 이야기들을 재현해주는 다른 매체나 기술도 사용하였다. 장식 예술, 그 중에서도 특히 그림들과 삽화들이 가장 초기의 예들 중에서 두드러진다. 아래의 예들은 두라 유로파스(Dura Europas)란 도읍에서 나온 것이다. 이 도읍은 고대의 무역 중심지이자 군사적 전초기지였다. 로마인들은 이 곳을 페르시아에 대항하여 세운 시리아 지역 방어선의 일부로서 다시 요새화하였다. 이 두라 유로파스는 주후 3세기까지 번영을 구가하다가 페르시아 군대에게 멸망하였다. 제 1차 대전 중에 프랑스 군사 기술자들이 포대를 설치하기 위한 전략적 위치를 찾는 중에 다시 발견된 이 두라 유로파스에서 고고학자들은 공공 건물과 개인 소유건물들의 유적으로부터 놀라울 만큼 다양한 유물들을 발굴해내었다. 재건된 유물 중에는 회당과 기독교의 가정 교회가 있었다. 이 중 회당에서 고고학자들은 성경의 장면들을 그려 놓은 그림들로 장식된 벽을 발견해서 복구했다. 아래의 그림은 출애굽기 12장의 출애굽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을 지배했던 사람들로 부터 획득한 노획물들을 잔뜩 가지고 이집트의 라암셋 성을 걸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과 여섯 개의 다른 그림들이 이 방의 벽을 덮고 있었는데, 이 벽에는 유대교 공동체가 성스러운 토라 두루마리들을 보관하던 벽감(壁龕, niche) 혹은 작은 벽장이 있었다. 이 방은 예배와 교육을 위한 장소의 역할을 하였는데, 성경 말씀의 강독과 해설을 들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유대교 경전의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전시해 보여주고 있다. 유대교 지도자가 이 성경 이야기들을 읽거나 설명하면서 기억을 돕고 시각적인 도해의 역할을 하는 이 벽화를 가리키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림 3> 두라 유로파스

주후 33년에 예수께서 죽으신 지 얼마 안 되어 기독교인들은 로마로 가서 거기

에 기독교 모임을 심었는데, 그 곳은 그 지방 이름으로 트란스티베르티나(Transtibertina), 즉 “티베르 강의 반대편” 정도의 의미를 가진 구역임이 거의 확실하다. 이 트란스티베르티나 구역에서 기독교인들은 이미 확고하게 터를 잡고 있던 큰 유대인 무리를 발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유대인들은 장인, 소매상인, 일용 노동자, 무역상, 군인, 자유 노예 등이었던 것 같다.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집을 집회와 예배의 장소로 사용하였다. 그러다가 그들은 버려진 거대한 지하 회랑들과 통로 체계를 발견하였는데, 이 곳은 카타콤이라고 불리던 곳으로서 로마의 시 행정관들이 버린 곳이었다.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이 카타콤들과 나폴리 및 알렉산드리아의 비슷한 곳들을 예배와 교제와 보호를 위해 모이는 장소 및 시체를 매장하는 장소로 사용하였다. 이 카타콤들에서 기독교인들이 성만찬을 기념하는 모습을 상상해본다면 우리는 왜 도미틸라(Domitilla)의 카타콤에서 성만찬을 시각적으로 재현해 놓은 최초의 것들 중의 하나를 보게 되는지 이해할 수가 있다. 예수와 열두 사도를 그림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이 의식을 기념할 때 시각적인 참고자료가 되었으며, 최후의 만찬의 성구자료와 언어적인 설명을 나열하고 있는데 고전 11:17-25; 마 26:26-30; 막 14:22-26; 눅 22:14-23 등이 그것이다. 우리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성찬식을 기념하는 배경이 된 예수와 그의 친구들의 식탁 장면을 시각적으로 재현한 것의 힘을 쉽게 느낄 수 있다. 같은 카타콤에서는 또한 예수에 대한 가장 초기의 묘사들 중의 하나를 볼 수 있다. 이것은 예수를 선한 목자로 묘사한 장면들 중의 일부인데, 예수에 대한 이 널리 퍼진 묘사는 또한 요한복음 10:1-21을 통해서도 알려져 있다. 예수가 수염 없는 젊은이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것은 유명하다. 그는 당시 로마인의 옷을 입고 한 어린 양을 어깨에 멘 채 양 떼에 둘러 싸여 있다. 카타콤의 이 두 개의 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기독교인들이 그림 및 삽화 기술만을 로마인들에게서 빌려온 것이 아니라 예수와 그의 동료들을 위해 로마인 모델들을 사용했으며 그들을 로마인 옷을 입은 수염 없는 젊은이들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4> 최후의 만찬

<그림 5> 선한 목자 예수

삽화가 들어간 사본들(Illustrated Manuscripts)

시간이 흐르면서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은 성경 이야기들을 글로 표현한 것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의 결합이 가진 힘을 인식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언어와

그림을 합쳐서 예술과 내러티브의 통합체로 만든 사본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러한 그림이 있는 사본들 중 좀 더 고급스러운 것들은 어둠 속에서 빛이 나는 황금색 물감을 사용한 것도 있다(라틴어로 *illuminare*라고 하는데, 빛나는 사본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다). 이미지들이나 삽화는 단순히 본문을 장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들은 독자와 관람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내러티브로부터 전달해주는 시각적이고 비언어적인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이 초기 시대 교회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글을 읽을 줄 몰랐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은 문맹이 보편화 되어 있는 당시의 상황을 나름대로 극복하고, 단순히 언어적으로 서술하는 것 이상이 필요한 메시지들을 강조해주고 생생하게 만들며, 성경의 메시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당시의 시각적, 물질적, 대중적 문화를 통합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삽화가 들어간 성경 사본 제작을 의뢰했다. 주후 15세기의 스페인의 알바 사본(*the Alba Manuscript*)은 문헌 예술과 시각 예술의 통합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유대교와 기독교 문화를 화해시키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당대의 가장 아름다운 서체와 상징물들을 동원함으로써 이 프로젝트의 후원자들은 이 성경 사본을 통해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기를 희망했다. 그들은 스페인의 관료들과 성직자들로부터 최소한 관용을 얻어낼 수 있기를 희망했다. 비록 유대인들에 대한 찬사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말이다. 그리고 사실 관료들과 성직자들이 히브리어를 읽지는 않는다고 해도 그들 자신들의 학파의 최고의 수준에 상응하는 시각적 예술을 보여주는 이 히브리어 사본은 분명히 그들로부터 찬사와 존경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으며, 스페인의 통치자들은 그 세기 말에 유대인들을 강제로 스페인에서 내쫓아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바 사본은 중세 시대 말기의 채색된 성경 사본이 누렸던 위엄과 힘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로 남아 있다.

<그림 6> 알바 사본

중세 시대 초기부터 기독교인들은 성경 본문을 말과 그림으로 말해야 하는 이야기로 취급했다. 두 개의 가장 유명한 예는 주후 8세기와 9세기의 아일랜드의 켈틱 기독교 교회의 켈스 성경(*the Book of Kells*)과 린디스판 복음서(*the Lindisfarne Gospels*)이다. 아일랜드에 간 선교사들은 켈트 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였다. 첫 번째 문제는 켈트 족의 문화가 구전 전승에 기초하고 있으며, 기록된 문헌이 없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문제는 선교사들이 복음서를 기록된 언어, 즉 라틴어로 된 문헌으로 가져왔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들은 기록된 라틴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구전 전승에 기초한 켈트족 문화에 복음을 선포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일부는 아일랜드 선교사들이 켈트족이 발전시켜 온 탁월한 시각적 자료들, 즉 정교한 기하학적 모양들, 밝은 색채 들, 기이한 동물들 등의 시각적 자료들을 기꺼이 사용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점에 있었다. 이 선교사들은 켈트족의 시각적 언어를 “읽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는 성스러운 성경의 글들이 이미지와 선화(線畵)와 문양들과 매듭들과 새들과 동물들의 가상적인 바다 속에 떠다니게 만듦으로써 낯선 라틴어 성경을 친숙하게 만드는데 사용하였다. 켈스 성경의 첫 삽화에서 네 개의 사각형으로 구획되어 있는 카펫 페이지(carpet page)⁵⁾는 네 명의 복음서 기자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속에 켈트족의 기발한 생각들과 기독교 전통을 잘 혼합시키고 있다. 복음서 기자들은 사자, 황소, 인간, 독수리의 모습으로 화하였다. 누가 복음의 첫 번째 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는 두 번째 삽화에서 글자와 색과 디자인은 아주 밀접하게 서로 얽혀져서 성경 내러티브를 하나의 단일한 멀티미디어 형식으로 재현해주고 있다.

<그림 7> 켈스 성경

<그림 8> 린디스판 복음서

건축(Architecture)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들을 대중적인 문화 속에 심고, 관람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시각 예술만이 아니었다. 건축 예술도 구성과 양식이라는 자체의 레퍼토리를 통해 성경을 쉽게 구현할 수 있었다. 정문 현관과 창과 후진(後陣)(apse: 교회당 동쪽 끝에 내민 반원형 부분으로 성가대의 뒤-역자 주)과 중랑(中廊, nave: 성당의 가운데 회중석이 있는 부분-역자 주)이 성경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은 고딕식 성당을 누가 상상할 수 있겠는가? 두라 유로파스 같은 이른 시기의 것들부터 건축적인 구성은 성경의 이야기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갔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두라 유로파스 회당의 토라를 위한 벽감(壁龕, niche)과 성경의 이미지들로 채워진 그 둘레의 벽은 토라 두루마리를 보관하고 성경의 이야기들의 그림을 전시하기 위한 건축학적인 공간을 창조하였다.

<그림 9> 토라 벽감

5) 역자 주 - carpet page는 사본중 도화가 그려진 페이지의 모습이 꼭 페르시안 카펫을 닮은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처럼 기독교인들은 성경 내러티브들의 번역이 건축 공간을 결정짓고, 형성하며, 채우도록 만들었는데,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하였다. 이탈리아의 라베나(Ravenna)에 있는 신(新) 아폴로나리스 성인의 교회(the Church of Saint Apollonaris the New)는 성경의 내러티브들이 그 이야기들을 공간과 구성과 디자인으로 옮겨 놓은 강한 영향력을 보여준다. 신 아폴로나리스 성인의 교회는 건축가들이 교회의 회랑과 천정과 기타 표면들 위에 성경 이야기들을 시각적으로 전시할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지를 보여준다. 교회의 종단면을 보면 우리는 수직축과 수평축을 따라 배열된 성경의 이야기들과 등장인물들이 성경의 파노라마적인 이야기를 말해주기 위해 건축물과 어떻게 통합되어 있는지를 보게 된다.

<그림 10> 신 아폴로나리스 성인의 교회

공연 예술과 섬유 예술(Performing and Fiber Arts)

시각 예술과 건축 예술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번역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연 예술과 섬유 예술도 역시 같은 일을 하였다. 음악적으로 성경의 이야기들을 재현하는 것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글로 재현하기도 전에 이미 유대교와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유대교의 노래집인 시편은 150편의 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시들은 개인적으로 묵독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소리 내서 노래하거나 읊조리는 것이 그 주된 활용 방법이었다. 신약도 음악에 대해서 몇 번 언급하는데, 이것들은 유대인의 음악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계 5:12; 15:3). 이 본문들은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다 성경의 이야기들을 재현하는 매개체로서 음악을 크게 간주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6세기쯤에 이르러서는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의 음악에 의존하지 않은 형태의 음악을 발전시켰다. 예를 들어 아래의 도미니코 수도원 합창집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한 음조로 읊조리기 등이 그것이다. 여러 가지 매체가 종합되어 있음을 주목하라. 여기에는 눈을 위해 시각적으로 나타낸 그림, 귀를 위해 멜로디를 나타낸 음표, 그리고 눈이 따라 갈 수 있도록 내용을 나타낸 글 등이 종합되어 있다.

<그림 11> 도미니코 합창집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무용수들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공연했다. 출애굽기 15

장에 따르면 미리암은 갈대 바다 횡단을 기념하기 위해 춤을 추었다(출 15:20).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무용은 현대까지도 성경 본문의 메시지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기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대인 예술가인 매릴린 벨포드(Marilyn Belford)가 만든 퀼트에 미리암의 춤이 재현되어 있는 것을 보라.

<그림 12> 미리암의 춤

현대 발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재현한 것들 중 가장 눈길을 끄는 작품들 중의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Sergei Prokofiev)의 동명의 작품이다. 1929년 봄에 파리에서 초연한 이 발레 작품의 공연 시간은 30분을 겨우 넘기는 정도다. 그러나 안무, 의상, 시나리오의 측면에서 이 작품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예술적으로 다루는 데 있어서 최고의 기준을 제시해 주었다. 이 발레에는 현대 무용에서 가장 위대한 등장인물 중의 하나인 사이렌이 등장한다. 그녀는 성경에서 탕자가 사귄 창녀를 재현한 것인데, 그녀는 성경에는 단 한 절에만 나온다. 그러나 발레에서는 사이렌의 장면은 전체 극의 삼분의 일의 시간을 꼭 채워서 등장한다. 탕자 이야기 발레는 성경 본문이 하나의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전이될 때뿐만 아니라 한 매체에서 다른 매체로 전이될 때 일어날 수 있는 변화의 종류들을 보여준다.

<그림 13> 발레 작품 탕자

고대로부터 가정 예술(家庭藝術)과 섬유 예술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공연”했다(performed). 해리엇 파워(Harriet Power, 1837-1911)의 자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성경의 상징들과 등장인물들, 심지어는 이야기 전체가 미국 흑인의 퀼트 전통 속에서 되살아난다.

<그림 14> 미국 흑인의 퀼트

현대 유대인의 섬유 예술도 가정 예술 및 섬유 예술과 성경 이야기들의 구현 사이의 연결성을 유지하고 있다. 아래의 작품은 투 브셰바트(Tu B'shevat)라는 유대교 휴일을 기념하여 수놓은 작품이다.

<그림 15> 유대인 퀼트 작품

한국의 예(An Example from Korea)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는 한 가지 방법은 15세기 이래로 식민지와 선교지에서 얻은 경험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선교사들이 십자가를 심고, 구세계의 번역본들을 보급하고, 신세계의 역본들을 만들기 시작하자마자 곧 [신세계의] 원주민들은 이 새로운 신앙을 지역적이고 통속적인 대중 예술 및 장식 예술에 도입시켰다. 한 스페인 정복자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그와 잉카 통치자와의 만남은 그 통치자가 살펴보라고 받은 스페인어 성경을 땅에 집어던지는 것으로 끝장이 났다. 그 통치자는 성경을 귀에 대고 흔들어 보고 나서는 그것을 혐오하여 던지며 말했다. “이 성경은 말을 하지 않잖소” 우리는 성경이 여러 가지 의사소통 채널을 갖고 있으리라고 잉카 사람들이 기대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다.

19세기 말쯤에 프로테스탄트적 기독교가 뿌리를 내린 근대 한국의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자. 1970년대에 한국의 일부 성서학자들은 기독교와 문화에 대하여 “민중 신학”으로 알려진 접근방법을 발전시켰다. 이 접근방법 하에서 신학자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틀로서 아시아의 전통적인 종교, 철학 전통들보다는 한국의 대중적인 민간 종교, 문화적 전통에 의존하였다. 이런 정황 속에서 한국의 전통 탈춤은 성경, 그 중에서도 특히 가난과 압제와 불의에 대한 가르침들을 해석하는 문화 양식으로 떠올랐다. 이 시기의 기독 학생 운동가들은 탈춤의 전통과 누가복음 1:46-55의 송가 혹은 성모 마리아의 노래를 연결시켰다. 그들은 전통적인 의상을 입고 이 송가를 공연하는 것을 통해 마리아의 말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였다. “내 마음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홀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도다]”.

<그림 16> 한국의 탈춤

성경의 이야기를 재현한 것의 역사를 이렇게 짧게 개관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를 통해 재현한 현대의 이야기는 아직 다루지도 못 했다. 이 매체들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전 세계의 수백만에서 전달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위에서 우리가 든 몇 가지 예들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들을 야기한다. 예를 들자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무용이나 쿼트를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쿼트, 영화, 성당의 성경적 주제로 가득 찬 현관, 회랑, 수랑(袖廊, transept, 십자가 모양의 교회의 좌우의 날개 부분-역자 주)의 원 본문은 무엇인

가? 이 작품들이 성경의 내러티브들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지를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평가할 수 있을까?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하는가? 성경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재현한 것을 보는 청중은 누구인가? 이 작품을 주문한 부유한 후원자 한 사람인가, 아니면 시간을 초월한 모든 세대의 관람자들인가? 성경을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 것은 수용할 만한가? 각 매체는 내러티브를 어떻게 재형성하거나 변경시키는가? “본문”이라는 개념은 이런 정황 속에서는 어떤 것을 의미하게 되는가? 이 본문이란 것은 인쇄되어 있고, 부동적이고(immobile), 단일 매체의 페이지 속에 고정되어 있는 어떤 것인가, 아니면 보다 유동적이고, 보다 혼합적인 것, 즉 주어진 순간에 충만한 표현을 얻어내기 위해 많은 매체를 포괄하며 많은 매체를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인가? 이런 정황 속에서 청중이란 개념은 어떤 것인가? 퀘트나 무용 속에 담겨진 성경 내러티브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런 매체들은 인쇄란 방식으로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어떻게 성경 내러티브의 핵심적인 메시지들을 펼쳐주었는가?

이런 질문들은 한 가지 공통적인 질문을 전제로 한다. 그것은 우리가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한 매체에서 다른 매체로, 한 문화와 시간에서 다른 문화와 시간으로 성경의 내러티브를 전환시킬 때 어떤 방법 혹은 방법론들을 적용시키는가 하는 것이다. 모든 번역 혹은 의사소통 방법들을 포괄하는 것은 기호학(semiotics) 혹은 기호에 대한 학문이라고 불리는 학문 분야이다. 이제 우리는 기호와 기호학에 대한 짧은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매체 번역의 요소들과 관련이 있으며, 또한 위에서 제기된 질문들에 대해 어느 정도 빛을 던져줄 수 있기 때문이다.

3. 제 3강: 성경의 매체 번역(Media Translation) 이론에 대하여

기호학, 메타언어, 번역

로만 야콥슨의 이론에 따르면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한 문헌을 같은 언어로 다시 쓰든지, 그것을 다른 언어로 바꾸든지, 그것을 영화로 만들든지 하는 등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우리는 “번역”이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언어학적인 관점은 동일 언어 내에서 정보에 변환을 가하는 작업이나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변환을 가하는 작업이 어떻게 그것을 영화로 만드는 작업과 같은 종류의 번역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개념적인 차원에서 이 주장

을 명백하게 설명해주는 동시에 실제의 제작과 실행에 있어서도 가이드라인과 원칙들을 제공해 주는 하나의 이론적인 모델을 제시해주는 다른 학문분야를 찾아내야 한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어 원문을 영어로 변환시키는 것과 문어체 러시아어로 된 원 자료를 구어체 러시아어로 변환시키는 것, 그리고 소설을 영화로 변환시키는 것이 어찌 됐든 다 번역이라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왜 이 세 가지 작업이 우리가 번역이라고 부른다는 점에서 비슷함을 공유하면서도 그 번역과정과 최종적인 산물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지를 적절하게 설명해주는 단일 이론 혹은 개념적 틀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것은 상당히 다른 문제이다.

이러한 이론과 모델을 제공해주는 학문 분야는 기호학(semiotics)이라고 불린다. 이 기호학이라는 용어는 그리스어로 “기호”(sign)를 나타내는 *semeion*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 고전학자들은 이 용어를 잘 알고 있다. 예를 들어 그리스의 의학 서적들에서 이 단어는 병의 증상을 의미한다. 성경학자들도 이 단어를 요한복음 같은 책들 때문에 잘 알고 있다. 이 복음서에서 이 단어는 예수의 기적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행동들임을 나타낸다(요 2:11). 현대의 기호학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들은 모두 세 학자, 즉 페르디낭 드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 1857-1913), 찰스 샌더스 피어스(Charles Sanders Peirce, 1839-1914), 찰스 윌리엄 모리스(Charles William Morris, 1901-1979)의 업적에 기인한다. 이 중에서도 피어스의 업적은 모든 종류의 번역 이론 및 실행에 적용할 수 있는 점이 많기 때문에 특히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야콥슨이 번역에 대해 이해한 바(언어간, 언어내, 기호간 번역)대로 번역을 이해하는 일반 번역으로서 피어스의 기호학이 가치가 있다는 데 오늘날 점점 더 많은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체적으로 말하자면 기호학은 번역에 대한 메타언어(meta-language)를 제공해 준다. 다시 말해 기호학은 번역에 대해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준다. 기호학은 번역의 요소들을 기술하고(describe), 예견하고, 분석한다. 기호학은 이것 혹은 저 것의 가치를 격하시키지 않으면서 그렇게 한다. 기호학적 모델에서는 우리는 “이것은 풀어쓰기이지 번역이 아니다”라든가 혹은 “이것은 영화로의 개작이지 번역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기호학은 또한 한 기호 혹은 기호 체계를 다루는 것만큼이나 쉽게 복잡한 기호들이나 기호체계들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번역을 위한 메타언어로서 특히 잘 기능한다. 기호학은 우리가 개별 단어들을 다루든지, 혹은 문장들이나 문단들이나 영화나 건축이나 무용이나 음악을 다루든지 간에 우리가 어떻게 의미를 창출하고 어떻게 번역을 하는 지를 잘 설명해 준다.

그러나 기호학을 번역에 적용하는 것은 메타언어로서의 기호학의 이러한 기능을 초월한다. 기호학은 영원한 숙제인 의미의 문제, 그 중에서도 특히 번역된 의미의 문제를 잘 설명해 준다. 이것은 특히 왜 기호들 혹은 기호들의 집합이 상이한 독자들과 관람자들에게 상이한 것들을 의미할 수 있는지, 심지어는 같은 언어나 문화 내에서도 그러한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특히 유용하다. 예를 들어 “커피 한 잔 꼭 채우지 말고 주세요”(“I’ll take a cup of coffee with room”)란 말(이 표현은 영어 slang을 봐야 의미가 이해됨-역자 주)처럼 단순한 말이나 언어 기호의 조합이 맨하탄의 상가와 주택가 사이 지역에서는 의미가 통하지만 영어권의 다른 지역에서는 잘못된 말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왜인가? 또는 왜 멜 깁슨의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다 빈치의 모나리자 같은 그림을 볼 때 관람객들은 비슷한 조건에서 동일한 대상을 보면서도 왜 각자 다른 해석을 내리게 되는가? 기호학은 번역이라 부르는 과정을 통해 정보가 한 언어(예를 들어 영어)나 한 매체(예를 들어 책)에서 다른 언어나 매체로 이동을 할 때 일어나는 의미의 복잡한 변화를 일관된 방식으로 설명해 준다. 마지막으로 기호학은 의미에 대해 널리 퍼져 있으면서도 매우 제한된 견해에 대한 필요불가결하고 강력한 고정제의 역할을 한다. 이 잘못된 생각에 따르면 의미는 사물들(이미지들, 소리들, 어휘들) 속에 간혀 있는 기호학적인 낱알들이며, 그 껍질을 깨고 의미를 그 속에서 꺼내기 위해서는 번역이나 해석을 해 줄 번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론적인 모델이라는 것이 그렇듯이 기호학은 일련의 기본적 특질들, 혹은 개념의 기본적 구성요소(*conceptual building blocks*)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들은 1) 일련의 철학적 범주들, 2) 논리적 사고에 대한 접근방법(앞의 범주들에 기초하고 있음), 3) 실재를 기호란 측면에서 취급하기, 4) 기호 작용(*semiosis*)이라고 불리는 의미 창출 과정(그리고 화용론[*pragmatism*] 혹은 참여[*engagement*]에 대한 열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범주들(Categories)

마음이 어떻게 현실을 조직화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주는 철학적 범주들을 확립하려는 관행은 최소한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384-322 B.C.)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러한 관행에 따르면 철학자들과 논리학자들은 마음이 정신적 공간들 혹은 범주들을 세워서, 우리의 오감, 즉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을 통해 바깥 세계로부터 우리의 마음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모든 감각적 느낌들을 분류하는 데 이것들을 사용한다고 추측한다. 이 범주들은 마치 분류용 상자처럼 작용을 한다. 마음은 감각적 느낌들을 이 상자들 속으로 배분함으로써 이 느

낌들을 논리적으로 처리하고, 이 느낌들을 생각들과 명제들과 가치 판단들로 전환시키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 적절한 행동과 반응을 촉발시킨다.

아리스토텔레스(384-322 B.C.)는 이러한 범주를 실체(substance), 질(quality), 양(quantity), 관계(relation), 장소(when), 시간(when), 상태(position), 소유(having), 능동(action), 수동(passion)의 열 개로 분류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1724-1804)는 양(quantity), 질(quality), 관계(relation), 양태(modality)란 마음의 네 가지 범주 집합을 가정했다. 예를 들어 칸트의 비유에 따르면 나의 코와 눈은 소용돌이치는 연기구름을 입력시키고, 이 감각적 느낌들을 나의 마음속으로 전달한다. 나의 마음은 이것들을 관계라 부르는 범주, 그 중에서도 특히 인과관계를 결정하는 관계의 종류에 할당한다. 나의 마음은 이 정보를 처리해서 이 연기가 논리적으로 불을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판단을 내린다. 기호학자들은 단지 세 개의 범주만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을 생각(thinking), 추론(reasoning), 의미 창출(meaning-making)의 세 가지로 단순화시킨다. 이것들은 1단계(Firstness), 2단계(Secondness), 3단계(Thirdness)로 불린다. 이 각 범주를 마음이 원재료로서의 감정들과 감각적 느낌들과 직관들을 처리하고(1단계), 이것들을 우리 경험의 대상으로 연결시키며(2단계), 결론을 내리고 규칙과 지침과 법칙을 정하기(3단계) 위해 취하는 단계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간단히 말해서 이 세 가지 범주들은 마음이 어떻게 감각적 느낌들을 확신, 진리, 마음과 행동의 습관들로 변환시키는지를 단순하면서도 실증적인 방식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1단계는 현재의 순간, 특히 감각의 영역에서 포착된 현재의 순간을 기술한다. 이것은 “...분석되지 않은, 순간적이고, 직접적인 느낌, 즉 그것의 이해를 위하여 그것 자체를 넘어서는 다른 것에도 의존하지 않은 즉각적인 ‘그러함’(suchness)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1단계는 ...격렬한 통증, 전기 충격, 육체적 기쁨에서 느끼는 짜릿함, 빨강이나 검정이라는 색채의 인식, 기차의 기적 소리가 주는 찢는 듯한 느낌, 코를 찌르는 악취...를 통해 경험된다...1단계는 그러므로 “전체의 순수한 감정”으로 경험되는 무시간적인 현재의 순간이란 개념이다”. 당신은 화씨로 된 온도만을 알아들으면서 섭씨로 된 온도계를 볼 때 1단계를 경험하게 된다. 만약 당신 온도가 섭씨 16도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당신은 당신의 경험속에서 참고할 만한 아무 것도 찾아볼 수 없는 원재료로서의 숫자라는 1단계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예를 들어 당신이 중국어가 됐든 아랍어가 됐든 당신이 알지 못하는 문자로 이루어진 문헌을 보면서 당신이 보통 읽는 로마자로 된 글자들과 본문들을 읽는 것과 비교해서 그러한 문헌들의 “생경함”을 경험하게 될 때 1단계를 경험하게 된다.

1단계는 성경의 이런 저런 이야기들 속에서 당신이 적나라한 느낌들과 감정들과 중재되지 않은 경험들로 가득 찬 이야기들을 읽게 될 때 나타난다. 아가서의 에로틱한 정염, 소위 신현 이야기들이라고 불리는 이야기들 속에서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현현하셨을 때 그들이 느낀 번민(출 3:1-22; 사 6:1-13; 렘 1:4-10; 겔 2:1-3:27; 행 9:1-19; 행 22:6-16; 행 26:12-18), 사울의 광기와 질투(삼상 18:6-16),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분노의 편지(Tränenbrief) (1:12-6:13) 등의 구체적인 예들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의 도표는 1단계의 특질들과 예들과 성경 구절들을 정리해 놓고 있다.

1단계:	특질	예	성경본문
	느낌들과 감정들	사랑에 빠짐; 배반; 사망; 번민	아가서; 호세아의 아내 (호 2:1-13),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다윗의 애가 (삼하 1:17-27); 소명 기사에서 느껴지는 번민 (사 6:1-13)
	강력한 제 1감의 느낌들	충격, 고통, 놀람	예루살렘의 멸망 (애가 1:1-22); 빈 무덤의 발견 (막 16:1-8 및 평행 본문들)
	마음의 상태	황홀경, 광기, 이상들, 위상과 정체성	황홀경 속의 춤 (삼상 19:18-24); 이상(계 1:9-20); 선민의 위상과 정체성 (삼하 7:1-17)
	현재 지향성	여기 지금	요 20:1-31 (현재 시제 동사들)

2단계는 현재로부터 과거로 돌아가며, 타자의 차원을 더한다. 이 단계는 현재, 즉 1단계의 중재되지 않은 감정이나 경험을 “다른 것”, 즉 구체적인 물체나 사건과 연결시킨다(제 2단계의 것, a Second). 이 타자의 개념은 “...양면적인 의식, 행동과 대응, 경험과 자극, 변화와 변화에의 저항 등의 경험을 [포함한다]. 때리고 때림을 당한다는 개념은 진정한 2단계에 속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개념은 양극성, 상호작용, 비교와 투쟁이라는 요소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1단계의 것이 잠재성, 가능성, ‘단순히 실현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면 2단계의 것은 확고한 사실, ‘발생한 것, 실제로 일어난 어떤 것이다...실제 세계에 대한 모든 것과 인간 삶의 보다 실제적인 측면들—예를 들어 문을 열거나 전화를 하거나 공을 차는 것—은 2단계의 것이다”. 위의 온도계의 예로 돌아가 보도록 하자. 당신이 스스로에게 친숙한 화씨로 된 온도계가 50도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당신은 2단계를 경험하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당신의 경험은 그 숫자에 대해 관련시킬 수 있는 사항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 숫자를 으스스하하기는 하지만 춥지는 않은 공기의 온도와 연결시킨다. 또는 로마자가 아닌 문자와 글의 경우 누군가가

당신에게 그것이 “아라비안나이트”의 아랍어 판이라고 말해줄 때 당신은 2단계를 경험하게 된다.

성경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1단계(선민으로서의 지위)를 다른 민족들의 정복에 어떻게 적용시켰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역사적인 내러티브들(여호수아서, 사사기서), 가인과 아벨(창 4:1-16), 다윗과 사울(삼상 18:6-31:13), 선과 악의 투쟁에 대한 묵시록적인 내러티브들(계 13:1-21:8), 자신의 대적들에 대해 다루는 바울의 서신서들, 양극의 이야기들, 즉 이스라엘과 유다의 극적인 역사들이나 복음서의 수난 이야기와 같이 변화 및 변화에의 저항을 담은 양극의 이야기들 속에서 2단계를 발견하게 된다. 다음의 도표는 2단계의 특징들과 예들과 성경 구절들을 정리해 놓았다:

2단계: 특징들	예	성경본문
타자성; 변화; 양극성, 투쟁; 양방향적인 인식과 의사소통	정복과 패배; 전쟁과 사회적 갈등; 다름의 인식; 대화와 논쟁; 가족간의 갈등; 전쟁과 군사적 행동들	여호수아, 사사기, 제 1,2 막카비서; 창조 기록들; 비유들, 갈등 이야기들, 기적들. 요한 3서 (가이오 대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의 갈등); 요셉과 그 형제들 (창 37); 수난 이야기; 시편(대화)
행동과 반응; 사실적 세계에 대한 지식	필요에 대한 반응; 세계관들	예루살렘을 위한 모금활동 (고후 8-9); 공동 기금에 의한 생활 (행 4:32-37); 시대의 표적들(눅 12:54-56)
확고한 사실들; 발생한 일들		홍수(창 7); 전도서 3 (모든 것의 때)
과거지향성	좋은 옛 시절	케리그마 (고전 15:1-11)

3단계란 범주는 우리를 미래로 데리고 가며, “1단계의 희미한 일반성…과 2단계의 확정적 성격들…[넘어서]…연속성, 즉 일반적 원칙들에 의한 느낌과 행동의 규칙으로 [데리고 간다]. 이러한 원칙들이 논리적인 설명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모든 지적인 활동은 3단계의 것이다. 논리적 생각인 3단계는 질서, 법칙, 규칙성을 창출해낸다… 이것은 연속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3단계는 미래지향적이며, 우리로 하여금 그에 따라서 사태가 지금 어떠해야 하는지를 예측하게 하고 그에 따라 우리의 태도를 수정하게 만들어 준다. …” 온도계의 예로 돌아가 보자.

당신이 화씨로 표시된 온도계를 살펴보고 온도가 쌀쌀한 것을 확인한 후에 이 온도 표시와 공기의 온도가 일년 중 이맘 때 쯤이면 통상적인 것이며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당신은 규칙의 형태로 3단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아라비안나이트”의 아랍어 본문의 경우에 당신이 이 언어의 규칙들과 틀을 알고 있어서 통상적으로 글을 있듯이 이 본문을 읽을 수 있다면 당신은 3단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에서 이러한 3단계의 특질을 갖고 있는 내러티브는 잠언, 레위기서의 성결법(the Holiness Code), 십계명, 산상보훈 등이다. 다음의 도표는 3단계의 특질들, 예들, 성경 구절들을 나열하고 있다:

3단계	특질	예	성경본문
	질서	목록들, 표들, 지도들, 도표들, 청사진들	새 성전 (겔 40:1-48:35); 새 예루살렘 (계 21:1-22.5); 대상 1:1-9.44)
	규칙성	연속성, 예측성	열두 제자를 부르심 (막 3:13-19);
	보편화	지혜, 조언, 실제적	잠언, 욥,
	권위	법률들, 규칙들, 관례들, 규범들	십계명 (출 20:1-17); 산상보훈 (마 5-7); 성결법전 (레 19-26); 신명기 법전
	미래지향성	예측들, 가설들, 목시	다니엘서, 계시록

논리(Logic)

이 세 범주를 사용하여 기호학은 논리에 대한 접근방법을 발전시킨다. 이 논리라는 과정을 통하여 마음은 [감각적] 느낌들로부터 잘 형성된 결론들과 복합적인 논거들로, 그리고 기존 정보들로부터 새로운 정보로 나아가게 된다. 번역가들은 선택해야 할 것들의 무게를 달아보고 결정을 내릴 때 이와 동일한 규칙들을 따른다. 고전학적으로 말하자면 기호학자들은 어떻게 마음이 전제에서 결론으로 나아가게 되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그러나 기호학자들은 범주의 문제에서 그랬던 것처럼 논리의 문제에서도 고전학자들과 차이가 난다. 기호학은 연역적 추론과 귀납적 추론이라는 고전적인 삼단논법을 알고 있다. 그러나 외전적 추론(abductive reasoning)이라 불리는 제 3의 삼단논법을 추가시킨다. 이 세 번째 종류의 논리전개 방법은 특히 번역과 관련이 많다.

연역적 추리방법에서는 우리는 규칙(rule)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case)를 언급하고, 결론(conclusion)으로 끝을 맺는다.

규칙: 주차장의 모든 차들은 메르체데스이다.

사례: 이 차는 주차장에 있는 것이다.

결론: 이 차는 메르체데스이다.

번역의 맥락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규칙: 산상보훈의 모든 진술들은 예수의 권위를 나타내준다.

사례: 이 진술은 산상보훈 중에 있는 것이다.

결론: 이 진술은 예수의 권위를 나타내준다.

연역적 추론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적용하고 확장시키는 것이며, 일반적 규칙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그 결론들은 필연적으로 참(true)이다. 연역적 삼단논법에서 전제 혹은 규칙, 즉 일반화하는 진술은 3단계의 예이다. 그런 것으로서의 전제는 우리로 하여금 필연적인 결론을 도출하게 만들어주는 규칙과 규정으로서 기능을 한다.

귀납적 추론의 경우에 우리는 구체적 사례로부터 결과로 나아가며, 마지막으로 일반적 규칙으로 나아간다.

사례: 이 차들은 주차장에 있는 것들이다.

결과: 이 차들은 빨간 색이다.

규칙: 이 주차장의 모든 차들은 빨강다.

혹은 번역의 맥락에서는:

사례: 이 진술들은 산상보훈에 있는 것들이다.

결과: 이 진술들은 예수의 권위를 나타내준다.

규칙: 산상보훈의 모든 진술들은 예수의 권위를 나타내준다.

귀납법은 개연성 있는 논거 혹은 통계적인 논거로 구성되어 있다. 귀납법은 일반적 규칙이 구체적인 사례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귀납법은 실증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우리가 확

실성과 진리로 나아가는 주요한 방법들 중의 하나를 제공해준다. 기호학은 귀납법적 논증의 사례 혹은 전제를 마치 풍신기(風信旗, 혹은 풍향계)가 바람을 나타내주듯이 결론을 “나타내주는” 지표(指標)라 불리는 특별한 종류의 기호로 간주한다. 지표가 어떤 다른 것(일반적 규칙)을 나타내주는 것처럼 귀납법적 논증의 전제는 2단계를 나타내준다.

외전적 추론은 논리학적으로 귀납법적 추론이나 연역법적 추론과 같은 정도의 효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과 인문학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시킬 수 있는 논리적 효력을 갖고 있다. 외전적 논증은 규칙의 형태로 된 전제로부터 시작해서, 결과 혹은 관찰사항을 진술한 다음에 결론 혹은 사례를 이끌어낸다.

규칙: 주차장의 모든 차들은 메르체데스이다.

결과: 이 차들은 메르체데스이다.

사례: 이 차들은 주차장에 있는 것이다.

번역의 맥락에서는 이렇게 된다.

규칙: 산상보훈의 모든 진술들은 예수의 권위를 나타내준다.

결과: 이 진술들은 예수의 권위를 나타내준다.

사례: 이 진술들은 산상보훈에 있는 것이다.

외전적인 추론은 가설을 낳으며, 때로는 도박이나 노름이나 내기에 비교되어 왔다. 즉 나는 이 진술들이 예수의 권위를 나타내주고 있으며, 산상보훈의 모든 진술들은 예수의 권위를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진술들이 산상보훈에서 왔다는 것을 단언한다고 하는 식이다. 외전적 추론은 번역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추론 방식인데, 이에 따르면 일종의 직감이나 통찰에서 시작해서 규칙을 뽑아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서의 전체적인 범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번역자는 이런 식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규칙: 마가복음서의 모든 장들은 수난 내러티브를 전제하고 있다.

결과: 이 장들은 수난 내러티브를 전제하고 있다.

사례: 이 장들은 마가복음서에서 나온 것이다.

외전적 삼단논법의 규칙 혹은 전제는 일종의 직관, 가설, 혹은 도박(나는 이 모

든 장이...라고 단언한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1단계의 경우이다. 다시 말해 이것은 느낌, 규칙으로 간주된 직관이다. 기호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아이콘(icon)이라고 불리는 특정한 종류의 기호에 해당한다. 외전적 논증은 가설에 도달하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자료에 의해서 증명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외전적 논증은 또한 도전을 받을 수도 있으며, 잘못된 것으로 증명될 수도 있다. 이것은 왜 어떤 번역의 선택 혹은 결정에 대해 단일한 답안이 존재하지 않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그것은 새로운 자료가 이 선택을 증명해줄 수도 있고 틀린 것을 증명해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매체 번역의 경우에 외전적 추론이란 도박은 더 분명하게 두드러지는데, 이 경우에는 번역 과정의 모든 선택이 관람자가 이 번역작업에 반영된 가설들과 관련한 자기 자신의 데이터와 경험을 끌어오기 때문에 확증, 반증, 해석에 열려 있는 채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기호들(Sig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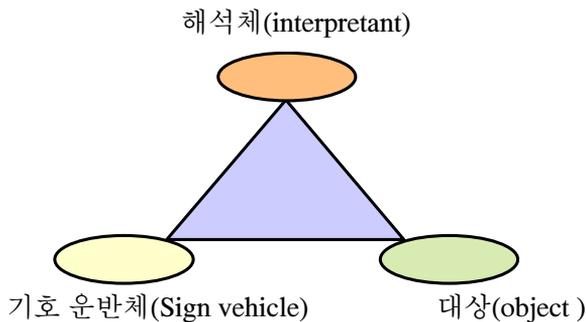
기호학에서는 모든 것이 기호로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기호로서 작용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요구조건은 그것이 그 자체를 넘어서서 다른 어떤 것을 나타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해석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말과 이미지들, 문화적 구조물들과 코드들, 생각들과 느낌들, 식물과 동물, 선과 색, 냄새와 맛 등의 모든 것은 잠재적으로 다른 어떤 것을 나타내주는 기호가 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더 나아가서 모든 기호는 다른 기호로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갖고 있다. 기호들은 1단계, 2단계, 3단계에 다 존재할 수 있다. 즉 기호들은 현재의 감정들, 과거의 사건들, 미래의 규칙에 근거한 행동들을 다 나타낼 수 있다. 기호들은 우리의 논리적 삼단논법들에 나타날 수 있으며, 전체, 관찰, 결론에 다 나타날 수 있다.

기호학에 따르면 모든 기호들은 동등하다. 어떤 한 기호 체계가 다른 기호 체계에 대해 우선권을 갖고 있지 않다. 말, 풍차, 고양이들, 요리, 옷, 구름, 책, 그림, 몸짓, 언어, 동물, 식물, 별들은 모두 다 기호들이다. 사회적 관습들, 도로표지들, 문화 체계들이 다 기호로서 작용하며, 정치적인 기관들, 문학적인 장르들, 과학적인 이론들과 법칙들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개념들 및 아이디어들과 느낌들 및 감정들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당신이 구름을 보고 비가 올 것을 예상한다면 당신은 구름을 하나의 기호로 보고 그것의 의미를 실증주의적으로 취급한 것이다. 당신이 당신의 위대한 삼촌인 이사야의 그림을 보고 당신의 조상과 가족사에 대해서 생각했다면 당신은 그 그림에 기호라는 가치를 부여한 것이다. 당신이 성경을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했다면 당신은 기호들을 가지고 작업한 것이다. 당

신이 배고픔을 느끼고 빅맥(BicMac)을 생각했다면 당신은 배고픔이란 것을 기호의 범주에 집어넣은 것이다. 당신이 뉴욕의 택시 운전수에게 당신의 주먹을 화난 듯이 흔들어댔다면 당신은 당신의 주먹을 기호화한 것이다. 만약 국기가 당신을 애국적으로 느끼게 만들어 주었다면, 녹색이 당신을 편안하게 느끼게 만들어 주었다면, 프렌치 빵 한 덩어리와 메독 와인 한 병이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의 파리에서의 학생 시절을 회상하게 만들어 주었다면 당신은 기호라는 것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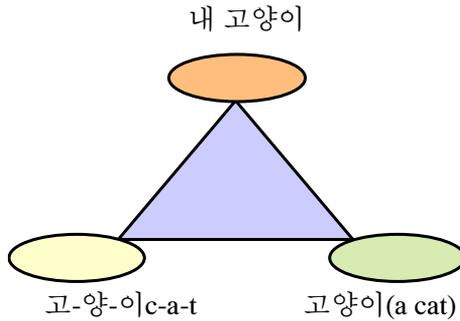
기호의 구성요소들(Parts of a Sign)

기호학자들은 기호가 세 가지 구성요소들을 갖고 있음을 지적한다. 기호에는 (3) 어떤 측면에서 누군가에게 (2) 다른 어떤 것을 상징해주는 (1) 어떤 것이 들어 있다. 가장 간단한 형태를 예로 들자면 식료품 가게의 진열대 위에 올려져 있는 사과의 그림을 생각해 보라. 이 그림의 배후에는 한 바구니 가득히 쪼나단 사과(사과의 한 종류-역자 주)가 담겨져 있다. 당신은 가게에 들어가 사진을 본다. 그리고 나서 사과 바구니를 보며, 그 사진과 사과에 구체적 의미를 부여한 순간과 사회적 위치를 본다. 당신은 사과 그림과 진짜 사과를 당신이 굶고자 하는 과이 속으로 들어가게 될 사과란 입장 혹은 토대 위에서 본다. 기호학자들은 기호의 이러한 구성요소들 각각에 대해 전문적인 용어를 갖고 있다: (1) 기호의 운반체(sign-vehicle), (2) 기호의 대상(object), (3) 기호의 해석체(interpretant). 전통적인 언어학에서는 당신은 기호의 대상을 외연(denotation) 혹은 지시대상(reference)이라고 생각하고, 해석체를 의미와 내포(connotation)라고 생각할 것이다. 기호학의 삼각형은 기호의 삼중구조를 시각화한 고전적인 형태로 등장하였다.



이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기호의 간단한 예는 “c”, “a”, “t”라는 세 개의 문자

가 될 것이다. 이것은 그 대상으로 실제의 고양이를 나타낸다(외연한다, denote). 해석체를 위하여 이 기호 운반체와 대상을 가정 생활의 관점에서 보면 고양이는 쥐를 잡는 동물이거나 혹은 동물학적인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애완동물을 의미한다(내포한다, connote). 해석체(3단계)에 의해서 그 대상(2단계)과 연결되어 있는 1단계의 예로서 기호 운반체를 생각해 보라.



기호의 형태들(Types of Signs)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기호에는 서로 다른 종류들이 존재한다. 십자가란 기호는 정지 표시와는 다른 종류의 기호이며, 또한 이 양자는 수화와는 차이가 난다. 십자가란 기호를 몸짓에서 그림으로 번역할 때, 그리고 한 문화의 정지 표시를 다른 문화의 정지 표시로 번역할 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 우리는 또한 시대의 기호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기호학자들은 기호들을 도상들(icons), 지표들(indexes), 상징들(symbols)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기호학자들은 기호들을 기호의 세 요소들 간의 서로 상이한 관계에 따라 분류한다. 특히 대규모 문헌과 디스크스 단위들의 새로운 매체적 번역에 있어서 기호학의 이러한 특징은 특별히 도발적이면서도 풍요롭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호들을 분류하고 파악하며, 질서와 순서를 제공해주며, 궁극적으로 한 언어와 매체로부터 다른 언어와 매체로 번역을 할 때 어떤 기호를 택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높은 수준의 분석 도구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기호학에서 기호는 종이 한 장에 찍힌 작은 점이나 글자로부터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서신들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복잡한 율법적, 신학적 논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다.

기호학자들은 위에서 본 삼각형의 구성요소들, 즉 기호 운반체, 대상, 해석체에 따라서 기호들을 분류한다. 기호 운반체는 그 자체로 그 자체만을 가지고 고

려해볼 때 1단계의 예이며, 매우 추상적인 수준의 것들, 예를 들어 언어학의 문자나 형태소(morpheme)나 어휘소(lexeme) 등이나 미술가의 팔레트 속에 있는 색들, 수학 체계 속의 숫자들, 행복감, 흥분의 감정 등이다. 이런 종류의 기호를 지칭하는 이름은 특질-기호(quality-sign)이다. 이것이 특질을 나타내주기 때문이다. 전문적인 용어로는 “quali-sign”이다. 기호 운반체가 어떤 것이 한 번 발생한 것을 대변할 때 우리는 그것을 단회적-기호(a single-sign)라고 부른다(전문적인 용어로는 a sin-sign). 그리고 기호 운반체가 일반적인거나 반복적인 경우를 대변하는 경우, 예를 들어 법칙들이나 경향들을 대변하는 경우 우리는 그것을 법칙-기호(a law-sign)라 부른다(혹은 legi-sign).

기호 운반체 자체

1단계:	종류	특질	예	성경본문
	특질 기호	색깔, 숫자	수학과 대수적 표시들	붉은 색, 자주색, 진홍색(계 17)
	단회적 기호	한 번 일어난 일	할리 혜성	예수의 탄생 (마 1:18-25)
	법칙 기호	일반적인 것들, 법칙들, 경향들	$E=MC^2$	삿 21:25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우리가 1단계를 번역할 때 우리는 원래의 것의 느낌이나 특질들을 번역된 목표체에 그대로 이전시키고자 한다. 우리는 원래 그대로의 감정과 그것이 주는 적나라한 느낌들을 포착하고자 한다. 델 김슨의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이 점에 있어서 놀라울 정도의 성공을 보여주었다. 수학적인 기호인 파이(π)는 그 자체 스스로 숫자들의 고유한 특질들을 상징해준다. 특질을 표현하는 것은 계시록 17장의 색깔들의 기능인데, 여기서도 그 자체 스스로 이 색깔들은 특질 기호로서 기능하고 있다. 예수의 탄생은 그 독특성을 통해 그 자체 스스로 단회적 기호를 대변해주는데, 이 점은 “독생하신 아들”이란 복음서의 구절 속에 표현되어 있다(요 1:14,18). 현대의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의 법칙($E=MC^2$)은 법칙 기호를 대변하는데, 사물의 물리적 질서 속의 규칙성을 표현해 주고 있다. 사사기서 21:25와 같은 진술 역시 법칙 기호인데, 규칙성과 경향들을 나타내준다.

기호 운반체와 그 대상을 함께 갖다 놓으면 우리는 2단계의 경우—즉 어떤 것이 다른 것을 경험하는 경우, 혹은 다른 것의 존재로 연결되는 경우—를 만나게 된다. 여기에도 역시 기호학은 세 가지 종류의 기호를 구분하고 있다. 기호들은 지도나 초상화처럼 그 대상을 재현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기호들은

도상들(圖像, icons)이라고 불린다. 혹은 기호들은 그 대상과 원인적 관계를 갖고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풍신계가 바람과 갖는 관계, 혹은 행동이 그 결과와 갖는 관계가 이것이다. 이 경우의 기호는 지표(指標, index)라고 한다. 또는 기호 운 반체가 상징으로서의 그 객체와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는 관습과 관례에 기초한다.

기호운반체와 그 객체

2단계 종류	특질	예	성경본문
도상들	묘사적(Representational)	지도, 초상화, 청사진, 꿈, 이상(異象)	다윗, 사울, 요셉의 전기들
지표들	원인결과	온도, 구름의 형성, 기압계	비유, 기적 이야기들, 축귀, 귀신 쫓아내기
상징들	통상적, 문화와 연결	단어들, 문헌들, 디자인, 이미지들	계시록의 상징적인 내용들

지도, 초상화, 꿈, 이상들은 도상들이다. 이것들은 자신들 외부에 있는 어떤 대상, 즉 도시, 여인, 건물, 억압된 욕망,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 등을 나타내준다. 그러나 도상(icon)은 그 대상물의 실제 모습을 “축약”(cook down)시켜서 그것을 더 작은 크기로 줄인다. 다윗, 사울, 요셉의 초상(肖像, portrait)을 제공해주는 성경의 이야기들은 도상의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이들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실제 역사 속의 대상 혹은 실제 인물들을 시사해주기 때문이다. 온도계, 기압계, 구름의 형성 등은 지표들이다. 이것들은 지표적인 기호로서, 어떤 것과 원인-결과적 관계에 있다. 온도계는 대상물이 얼마나 열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 반응한다. 기압계는 공기의 압력을 재며, 구름의 형성은 기후 전선에 반응해서 이루어진다. 예수의 비유들과 기적들은 지표들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 혹은 왕국의 도래 등에 대해서 원인-결과적인 형태로 시사해준다.

단어들과 문헌들, 그리고 디자인과 이미지들은 대부분 상징이라는 범주에 들어가는데, 기호학은 이 상징을 관례 및 문화에 매인 기호로 정의한다. 관례는 한 언어가 그 단어를 어떻게 대변하며, 그 어의학적 지도를 어떻게 그리며, 또한 이 양자가 세계를 어떻게 나타내게 만드는지를 결정짓는다. 예를 들어 관례 때문에 스와스티카는 1930년대와 1940년에 독일에서는 나치즘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 동일한 문양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는 장식 예술의 핵심적인 문양

(leit-motiv) 의 역할을 했다.

마지막으로 3단계의 관계 속에서 해석체는 기호 운반체와 대상을 논리적인 명제들 속에 함께 묶음으로써 가능성, 명제, 논거들을 만들어내며, 이 가능성, 명제, 논거들이 인간의 지식과 담론을 구성한다. 물론 이 속에는 번역을 규정짓는 지식과 담론도 포함된다. 만약 기호가 가능성을 형성한다면 그 기호는 해석기호(rheme)라고 불린다. 만약 기호가 사실을 나타낸다면 그 기호는 명제라고 불린다. 그리고 만약 기호가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면 그것은 논항기호(argument-통상적인 용어로는 “논거”라고 보면 될 것임-역자 주)라고 보면 된다.

기호 운반체와 대상, 그리고 해석체

3단계	종류	특질	예	성경본문
	해석기호(rheme)	가능성	외전적 귀납적	삼단논법, 삼단논법 구약의 결의론적 율법 조항(만약...그러면, If...Then)
	명제	사실	연역적	삼단논법 명언적 율법조항(...하라)
	논항기호	이유		빌레몬서

구약의 조건법적인 율법들의 진술들이 해석기호나 가능성의 예이다. “...한다면...하라”(If...then...)는 어구가 이런 경우를 대변한다.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칠 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레 26:21). 어떤 형태의 계속적인 행동이나 생각(기호 운반체)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역(대상)을 나타낸다. 이것은 해석체에게는 조건법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심판을 이러한 계속적인 행동이나 생각에 대한 하나의 결과가 될 수 있다. 명언적 율법(예를 들어 십계명)의 진술들은 명제 혹은 사실을 나타낸다. 출애굽기 20:1-17에서 한정된 일련의 행동들이나 생각들(살인, 도둑질, 탐욕)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위반을 나타내는 기호 운반체이다. 명언적 율법에 침잠해 있는 해석체에게 있어서 이러한 행동들이나 생각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을 의미한다. 빌레몬서는 논항기호의 한 예를 보여준다. 도망친 노예(오네시모)의 행동은 최소한 그의 주인인 빌레몬과 같은 해석체에게는 한 가지 대상(object), 즉 로마법에 따르면 심판을 받을 수 있는 행동임을 나타내주는 기호 운반체이다. 그러나 다른 해석, 즉 바울에게 있어서 이 기호 운반체나 대상은 다른 의미 혹은 결과, 즉 오네시모의 해방을 시사해주는데, 이것을 위하여 바울은 구체적인 논리전개를 하고 있다.

기호작용(Semiosis)

의미창출의 과정은 기호작용(semiosis)이라고 불린다. 이것은 기호의 세 구성 요소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 즉 해석체의 개입과 함께 정점에 이르는 상호작용을 가리킨다. 기호작용은 기호가 기호 운반체와 대상과 해석체의 첫 상호작용으로 의미창출 과정을 끝마치는 것이 아님을 내다본다. 오히려 기호작용은 해석체가 자기의 기호 운반체와 대상과 갖는 각 행동이 일련의 새로운 기호 운반체, 대상, 해석체를 창출한다는 것을 내다본다. 만약 가정의 애완동물을 벗으로 생각하는 한 해석체가 “c”(고), “a”(양), “t”(이)라는 기호 운반체를 그 대상으로서의 실제의 고양이와 결합시킬 때 그는 아마 “애완동물”이 이 기호 운반체와 대상의 의미라는 데 도달할 것이다. 그러면 “애완동물”은 이제 대상, 예를 들어 해석체의 애완동물인 고양이 휴고에 연결된 새로운 기호 운반체가 된다. 그러나 만약 의학이나 건강이라는 기준틀 속에서 생각하는 다른 해석체가 있다면 그 해석체는 자신이 고양이에게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휴고가 자기에게 위험거리가 된다는 결론을 내릴지도 모른다. 원칙적으로 말해 기호작용은 끝이 열려있는 것이며, 영원히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왜 매체 본문들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흥미로운가 하는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라이스(Grice)의 지침들(maxims)을 따라서 의미 창출 과정에 화용적 제약을 설정한다.

기호작용은 또한 문장 차원에서의 의미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오늘 수평선 위에 폭풍 구름이 모이고 있다”라는 문장을 기호 운반체로 상정해보자. 이것은 형성중인 기후전선이 그 대상(object)이다. 이 기호운반체와 대상을 기상학 혹은 기후 과학의 시각에서 읽는 해석체는 이 정보를 나쁜 날씨에 대한 경고로 간주하고, 사람들에게 실외로 나가지 말라고 조언할 것이다. 이 기호를 보트 경주의 시각에서 읽는 해석체는 예정된 경주를 위해 적절한 날씨로 받아들일 것이다. 만약 이 기호 운반체의 대상(object)이 어떤 사건, 예를 들어 임박한 전투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정치, 사회, 혹은 심지어는 종교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해석체는 이 폭풍의 그림이 격동, 변화, 폭력에 대한 은유라고 볼 것이다.

매체 번역과 가장 관련이 큰 것은 담론과 장르 차원에서의 기호작용이다. 예를 들어 산상보훈이라는 형태의 기호 운반체를 생각해보자(마 5-7). 기호 운반체로서 이 본문은 한 대상, 즉 예수라는 인물과 선생으로서의 그의 역할을 지시한다. 해석체는 자신의 토대 혹은 시각에 따라 이 객체를 다르게 취급한다. 예를 들어 (해석체의 시각에 따라) 역사적 예수의 가르침의 정수라고 본다든지, 복음서 기자 마태가 만든 창작물이라고 본다든지 하는 식이다. 화가, 조각가, 영화 제작자, 그림 소설의 제작자 등의 해석체들은 산상보훈에 다른 기준틀(frame of

reference), 즉 예술적인 창작이라는 기준틀을 덧씌운다.

장르, 예를 들어 복음서라는 장르 혹은 수난 내러티브라는 장르는 기호 운반체로서 작용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기호 운반체로서의 복음서란 장르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의 삶을 지시해준다. 만약 해석체가 학자라면 그 결과는 역사비평학적인 예수의 생애가 될 것이다. 만약 해석체가 영화 제작자라면 그 결과는 영화이다. 뎀 김슨이 2004년에 개봉한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한 좋은 예이다. 이 영화는 그 자체로 예수에 대한 헐리우드의 모든 영화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며, 심지어는 이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매체적 재현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계속적인 기호작용의 한 예이다. 이것은 또한 그 객체(object) 곧 예수가 역사적으로 당한 수난과 죽음을 지시해주는 기호 운반체이다. 이 영화를 투자, 신학, 인종 관계, 폭력, 혹은 번역학의 귀환이라는 측면에서 보는 해석체에게는 이 영화는 재정적인 노다지, 예수의 대속적인 고난과 죽음, 가시 돌친 반(反)셈족주의의 집종포화, 불필요한 폭력의 홍수, 혹은 영상 번역을 통한 탁월한 문화교류적 노력 등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우리는 복음서가 그 자체의 방식으로 예수를 기호작용에 참여한 기호학자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누가복음 12:54-56에서 시대의 표징들을 이해해야 한다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예수의 설교 속에서 작용하는 기호의 세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이 이야기를 기호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기호 운반체는 서쪽에서 피어오르는 수증기의 덩어리이다. 이것은 한 사건(날씨의 변화)을 시사해준다. 기호 운반체와 대상의 결합은 해석체로 하여금 비가 오려 한다는 것을 유추하게 해준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쪽에서 오는 공기의 움직임(기호 운반체)도 역시 한 사건(날씨의 변화)을 시사해준다. 기후 변화란 측면에 토대를 둔 해석체에게 있어서 이것은 날씨가 더우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다는 아닐지 모르지만 예수의 상당수의 비유들은 이런 종류의 기호작용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알레고리로 진화한 비유들은 신약에서의 기호작용에 대한 토론에서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는 또한 요한복음이 예수의 기적을 지칭할 때 *semeion* “sign”, 즉 기호란 그리스어 단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호작용은 순환반복적이며, 끝없이 계속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호들은 결코 같거나 정적인 것이 아니라 의미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누가복음 본문의 56절을 보도록

하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바람과 구름에 대한 54-55절의 예수의 모든 언급들은 여기에서는 정신적인 능력(날씨를 보고 변화를 예견하는 능력)을 지시해주는 기호 운반체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기상학이 아닌 영성에 관심이 있는 해석체의 관심 거리가 되었다. 이 해석체(예수)는 자신의 청중들이 날씨의 기호는 읽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시대의 기호(예수의 말과 행위들)를 읽고 이것들을 한 사건(왕국의 도래)과 연결시킬 능력이 없다고 결론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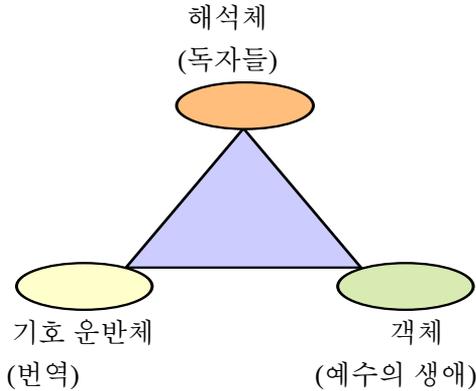
십자가란 기호는 기호작용의 순환반복적인 측면의 유명한 한 예이다. 고대 로마법의 맥락 속에서 십자가 문양은 실제의 십자가나 십자가 처형의 과정을 가리켜 주었을 것이며, 죄인에 대한 정당한 형벌을 나타내 주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초대 교회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란 기호를 채용했을 때 그들은 이 기호 운반체(십자가 문양)에게 한 새로운 대상(예수가 달려 죽은 십자가)과 한 새로운 해석체, 예를 들어 예수의 구속적 죽음이라는 해석체를 제공해 주었다. 후대의 기독교적 신앙과 신학은 십자가란 기호를 한 발 더 밀고 나가서, 예수의 십자가란 기호 운반체를 몸짓(기호 운반체는 이제는 머리와 가슴과 어깨를 살짝 만지는 육체적인 행위가 되었다)으로 바꾸었는데, 이 몸짓은 그 객체(즉 예수의 육체적 죽음과 물체로서의 십자가)를 가리킨다. 그리고 그에 따라 새로운 해석체,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신자 간의 신비로운 연합이라는 해석체가 등장했다.

기호작용은 또한 성경이나 다른 어떤 문학 작품에서 저자들이 다른 문헌을 빌려와서 활용을 할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준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말씀 자료(Sayings Source, 소위 Q문서를 가리키는 것 -역자 주)의 평행 본문들은 순환, 반복적인 기호작용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4:1-9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기호 운반체-대상-해석체의 조합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다시 그 자체의 객체와 해석체를 가진 하나의 기호 운반체가 되는 것이다.

기호학과 번역(Semiotics and Translation)

번역 과정 내에서 우리는 기호작용이 최소한 두 번 일어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한 번은 원래 본문의 형성 중에 일어나고, 또 한 번은 원문이 새로운 언어나 매체로 옮겨질 때이다. 사실 번역은 결코 종결이라는 것이 없는 기호작용의 과정을 내포하고 있다. 원래의 본문 전체, 예를 들어 누가복음의 그리스어 본문 전체를 기호 운반체로 생각해 보자. 그 객체는 예수의 생애가 될 것이다. 첫 번째 해석체(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다른 해석체들도 존재한다)는 일종의 원시 번역(a

마지막인 세 번째 단계에서는 번역 그 자체가 기호 운반체가 되며, 그것의 객체는 여전히 예수의 생애이다. 그러나 그 해석체는 독자들이다(혹은 공연이나 매체 상품의 경우에는 관람자들).



해석체들(Interpretants)

피어스(Peirce)의 기호작용에 의해 번역으로 도입된 새로운 개념들 중의 하나는 “해석체”라는 개념이다. 이것은 또한 유럽의 소쉬르(Saussure)의 전통과 미국의 피어스와 모리스(Morris)의 전통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들 중의 하나이다. 해석체는 기준틀(the frame of reference)로 간주되어야 한다. 해석체 속에서 기호 운반체와 객체는 몇 가지 가능한, 맥락에 근거한 의미들 중의 하나를 부여받게 된다. 해석체는 장소, 시간, 문화적으로 제약되어 있다. 해석체는 한 개인이거나 청중 혹은 더 나아가서는 한 특정 시장 영역(a market sector)일 수 있다. 한편 해석체는 또한 우리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번역을 만드는 데 적용된 지침들, 원칙들, 해석학적 원리들일 수도 있다. 이것은 모든 의미가 상황(혹은 맥락-역자주)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회, 제도, 문화적 상황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현대의 번역학에서 해석체는 “기준틀”로 이해될 수 있다. 현대 사전학에서 의미장(意味場, semantic field)이라는 개념은 해석체로 작용하는 듯이 보인다. 문법에서는 어휘들과 문장 구조를 지배하는 규범적이고 기술적인 규칙들(prescriptive and descriptive rules)이 해석체이다. 신학에서는 해석체는 근본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등과 같은 해석학적인 위치와 관련이 있다.

번역의 실증주의적 특성들(*The Pragmatics of Translation*): 기호에서 마음의 습관들로, 그리고 행동으로

기호학은 두드러지게 실제적이고 실증주의적이다. 기호학은 생각과 의미 창출이란 것이 마음의 습관과 정보에 따른 지적인 행동을 제공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도적인 행동들이라고 취급한다. 모든 실재(reality)를 기호라는 개념 하에 포함시킴으로 해서 기호학자들은 보편적인 효력을 갖고 있으며, 본문과의 직접적인 연대를 목표로 하는 번역을 위해 광범위한 의의들을 갖고 있다. 기호학의 개념적인 자원들(범주들, 논리, 기호작용)은 모든 것의 의미에 대해 확실성을 획득하고자 노력하며, 마음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진리 추구에 대한 과정으로 성숙시키고자 한다.

기호학의 실증주의적 측면은 또한 모든 기호 체계들에 대한 그 기술적이면서도 균형잡힌 접근방법 속에서 나타난다. 연구의 한 분야로서의 기호학은 기호 체계들을 기술하지만 기호 체계의 가치에 대해서는 그것이 시각적이든, 기록된 것이든, 소리에 대한 것이든, 동영상이든, 후각적인 것이든, 촉각적인 것이든 간에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한다. 기록된 말, 발설된 문장, 발레의 동작, 음조 등은 모두 정보를 전달하는 데, 각자의 영역 내에서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그렇게 한다. 이 점에 있어서 기호학은 현대 언어학의 자세를 반영하고 있다. 현대 언어학은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며, 언어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를 삼가한다. 에스키모의 이누피아트(Eskimo Inupiat)가 됐든, 씨 아일랜드의 흑인 영어(Sea Island Gullah)가 됐든 북미의 영어가 됐든 간에 이것들은 서로 다를 뿐이지 다 동등한 언어학적 체계인 것이다.

번역의 시각에서 보면 기호학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적절하고 받아들일 만한 번역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이해를 넓힐 수 있게 해준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번역은 야콥슨의 번역의 종류 중 첫 번째의 것, 즉 언어간 번역만을 의미했다. 기호간 번역은 최근까지만 해도 정당한 번역의 종류로 거의 인정되지 못했으며, 번역 및 번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신뢰할 만한 지식의 원천으로는 더욱 더 인정을 받지 못해 왔다. 기호학은 무엇이 번역인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장시켜 줄 뿐만 아니라 적절하고 받아들일 만한 번역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의 이해를 넓혀 준다. “적절한 번역”(an adequate way)이란 것은 번역문(target text) 혹은 번역이 원문의 의미를 얼마나 잘 포착하느냐 하는 것을 측량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수용할 만한 번역”(“an acceptable way”)이란 번역이 대상 청중의 기대와 규범들을 잘 포착했느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충실성(fidelity), 의미의 불변적

인 핵심(invariant core of meaning), 동등성(equivalence), 정확성(accuracy), 유사성(similarity) 등의 용어가 적절성이나 수용성에 대한 판단을 표현해 왔다. 이 용어들은 주로 언어간 번역과 언어내 번역에 적용되어 왔다.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 이 용어들은 한 가지 종류의 기호, 즉 기록된 말 혹은 문헌화된 본문만을 측정한다. 언어학적 모델의 번역 내에서 작용할 때 이것들은 원문과 번역문 사이의 구문론적, 어의론적, 화용론적 “간극”(gap)을 평가해준다. 만약 간극이 좁으면 그 번역은 성실한 것이다. 만약 간극이 넓으면 번역은 성실하지 못한 것이거나 기껏해야 풀어쓰기, 각색, 개작, 혹은 다시 말하기(retelling) 정도가 된다.

기호학적 모델에서 적절성과 수용성은 문헌이나 기록 뿐 아니라 모든 기호 체계에 적용된다. 그러한 체계 속에서 우리는 무용, 노래, 몸짓, 냄새, 건축물, 혹은 색깔 등도 원 메시지의 적절하면서도 수용성 있는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풍신기는 바람의 방향을 인간이 보고 반응할 수 있는 시각적 기호로 적절하고도 수용성 있게 번역해 준다. 어떤 문화들에서는 빨간 색은 생일을 의미하지만 다른 문화에서는 분노를 나타내며, 또 다른 문화에서는 악당의 무리를 나타내기도 한다.

결론(Conclusion)

기호학적 접근방법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해석하고, 이 이야기들을 매체 번역 혹은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을 위해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매체 번역가에게 새로운 면서도 강력한 도구를 제공해 준다. 우선 기호학적 접근방법은 번역을 단어, 문장, 담론, 장르 차원에서 이해하는 우리의 통상적인 이해를 더 깊게 해준다. 이와 더불어 이 접근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매체와 기술이 가장 쉽게 작용하는 차원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준다. 예를 들어 매체 제작자는 자신들이 영화, 비디오, 무용 등으로 번역하고자 하는 본문 속의 “빅 아이디어”(big idea)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 빅 아이디어를 찾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1단계, 2단계, 3단계의 영역이다. 멜 깁슨이 자신의 영화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포착한 1단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 분석적인 도구로서의 기호학은 우리로 하여금 기호 운반체, 대상(혹은 지시 대상[referent] 혹은 외연[denotation]), 해석체(혹은 의미 또는 내연[connotation])를 구분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번역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분별력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기호학은 우리가 번역하고자 하는 본문의 성격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열어 준

다. 예를 들어 우리는 본문을 세 가지 주요한 언어학적 요소들—어의론, 구문론, 화용론—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기호학은 본문이 또한 혼합적이라는 사실, 즉 본문이 인쇄된 것이든, 시각적인 것이든, 동영상이든, 음향적인 것이든 간에 다양한 기호 체계들로 이루어진 것임을 말해준다. “혼합적 본문”(syncretic text)이라는 말은 본문 속에 심겨진 정보의 성격을 가리킨다. 이것은 정보가 우리에게 다수의 경로, 혹은 매체를 통하여 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의 역사 및 매체에 대한 우리의 강의로부터 끌어온 예들을 생각해 보라. 심지어는 인쇄된 본문에도 거기에는 선, 색, 디자인, 인쇄된 모양, 배열, 구성 등이 들어가 있다. 삽화, 선화, 회화, 음악 등을 생각할 경우 당신은 여기에 모양, 시점, 색조 등을 본문의 혼합적인 성격의 목록에 추가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기호 체계들은 본문의 원래의 의미에 기여를 하며, 번역문 속의 번역된 의미에도 기여를 한다. 문헌의 혼합적인 성격을 파악하는 좋은 방법은 사람들에게 총천연색 영화 대신에 흑백 영화를 보여주거나, 검은 색 가죽 정장에 책 옆면을 금색으로 칠한 성경 대신에 그냥 단순한 보급형 성경을 보여주면 된다.

우리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호학은 본질적으로 연대(engagement)와 실제적 결과들을 목표로 한다. 기호학적인 번역의 개념은 실제적인 결과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요구한다. 기호학적인 번역의 개념은 우리를 기호들과 의미의 영역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행동들을 지시해주는 마음의 습관들을 확립하는 데로 이끌어간다. 성경 번역의 경우 기호학적인 모델은 성경에 대해 더 크게 몰입하며, 그 권위를 깨닫고, 성경을 더 잘 인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기호학적인 모델은 생각과 의미창출이 정보가 있는 지적인 행동에 이르는 마음의 습관을 제공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도적인 행동들이라고 간주한다.

메타언어로서 기호학은 일련의 기술적, 예견적, 분석적, 실용적 도구들을 제공해 준다. 이것은 번역자가 원문과 원래의 문화, 그리고 번역문과 번역문의 문화 사이를 중개할 때 사용하는 요소들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기호라는 보편적인 현상과 구조를 사용한다. 기호학의 예견적인 측면은 기호작용이라고 불리는 과정 속에서 기호들이 다른 기호들, 그리고 특정한 사회적 위치와 문화적 배경과의 역동적인 상호 작용 속에서 그 내부 기관을 돌아가게 만듦에 따라 의미를 창출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예견적이다. 분석적인 도구로서의 기호학은 세계의 개념적 범주들(1단계, 2단계, 3단계)과 일련의 기호의 종류들을 제공해주는 데, 이것들은 기호간 번역에서 중요한 요소들로 본문을 분해해보는 신선한 방법을 제공해 줌으로써 본문과의 만남을 용이하게 해 준다. 범주들과 기호의 종류들은 언어학적이고 역사비평학적인 분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선행하면서 번역 작업이 진행될 기호학적인 한계들을 설정해 준다. 그리고 마지막으

로 퍼어스의 기호학이 실용주의적이기 때문에 기호학은 번역의 최고의 가치는 마음의 좋은 습관들의 형성이라고 정의한다. 성경 번역의 측면에서 이것은 성경의 권위의 인식에 이르는 마음의 습관들을 의미한다.